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머리말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 스토리”

UCI (소위 “곽 그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6 년 가을 무렵부터 일본에서 집회를 하면서 보급시키고 있는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일본어 번역판)에는 참어머님을 알보는 “말씀 개찬”과 “오역”등이 산견됩니다.

먼저 한국어판의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말씀을 그러모아 만든 “말씀 개찬”를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어 번역판은 그 문장을 자신들 주장에 맞도록 악의적으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의 분열』은 340 페이지에 달하는 서적이지만, 그 내용은 읽는 자로하여금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도록 교묘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의 창교자 (참아버님)의 아들 속에서, 후계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삼남 현진 씨였다. 그는 자타가 공인한 통일교의 후계자이며 (58~59 페이지), 외모를 볼 때도 창교자를 닮았고, 성격도 창교자의 성격을 닮았다. 그의 등장은 통일교가 재강화될 기회였다 (60~62 페이지). 학력 등 그의 능력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늘의 계시에만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통일교를 부흥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61 페이지).

또한 현진 씨를 지지하는곽정환 씨는 공무 처리에 엄격하며, 입장을 주어져도 청렴한 생활을 하여, 공금 횡령이 한 번도 없었으며, 모범적인 인격자였다(87 페이지).

한편 사남의 국진 씨는 곽정환 씨를 요시찰 인물로 하고, 비리를 밝히려고 획책했으나 (85~86 페이지), 국진 씨는 거짓말쟁이이며, 창교자는 그의 거짓말에 대로했다 (89 페이지).

칠남의 형진 씨는 종교성은 있지만, 자신의 종교성에 의지하여 통일교의 전통을 왜곡함으로써 통일교의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했다(103 페이지). 국진 씨와 형진 씨는 후계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진 씨를 대신하여 통일교의 후계자 자리에 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는 “파크원 사업에 대한 문국진의 거짓 보고”가 있었으며 (91 페이지), 창교자를 끌어들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진 씨를 쫓아 버리기 위한 음모였다 (95~97 페이지).

그 음모의 배경에 “문현진의 등장을 위기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60 페이지), 제 1 세대의 저항이 있었으며 (79 페이지), 또한 현진 씨의 혈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여, 창교자에게 영향을 미친 한학자의 존재가 있었다 (116 페이지). 문인진 씨의 미국 총회장 취임, 2009 년 3 월의 속초사건도 음모에 의한 것이었다 (119~120, 152 페이지).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창교자의 태도는

불명확했다(70 페이지). 이 창교자의 태도가 통일교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한학자는 창교자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으며(110 페이지), 창교자에 대해 “불순종”이었다 (245 ~ 252 페이지). 창교자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진상이다.

창교자가 타계한 통일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창교자의 정체성이 한학자의 정체성에 의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318 페이지). 한학자 타계 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320 페이지). 그러나 창교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하려는 현진 씨에 의해, 통일교인의 재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23 페이지).

이상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만, 이 책의 문제는 상기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요지 요지에서 “말씀 개찬”또는 “오역”을 하고 있으며, 참부모님의 실체, 아버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점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허위 스토리”입니다.

또한 총론적인 “한학자의 불순종”(245 페이지)이라는 항목에서는 아버님 말씀이 18 개나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말씀선집의 원전(原典) 속에서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개찬된 것입니다.

이 개찬 행위는 참부모님을 알보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시키려는 역사적인 “독신 행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참아버님의 소원 —— 『통일교의 분열』의 내용은 반대파의 언설과 흡사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후계자를 누구로 하는지 “창교자가 보여준 태도가 불명확했다” (70 페이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아버님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아버님은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선집』 318-260),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202-83~84)라고 명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서는 후계에 관한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먼저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라고 하셨으며, 그 다음에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서는 상속자로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질서를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런 문이 고회를 지나고 70 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와?' 하는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1 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 2 교주다 이거예요”(『말씀선집』 201-126)라고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0 년 3 월 31 일, 원리연구회 세계회장에 현진 님이 취임하고, 그 관계자가 현진 님을 아버님보다 전면에 밀어내면서 보고를 하게 되니, 아버님은 그 해 5 월 31 일,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세 번째가 아들이야. 그거 알아?어머니 전통을 세우기 전에 아들 전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말씀선집』 323-83)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운 전통에 따라서 아들이 전통을 세우도록 충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지도는 명확한 것이 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을 읽고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주장이 이른바 반대파의 '참부모'를 불신시키려는 통일교회 비판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통일교회에서는 신자에 대한 납치 감금을 동반한 강제적 탈퇴 설득 사건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때 반대 목사, 반대 변호사, 언론인들이 그 배후에서 가족들을 교사하는 등, 탈퇴 설득 사건에 관여해 왔습니다. 1993 년 3 월 6 일의 야마자키 히로코 씨의 실종 사건의 배후에는 아리타 요시후 씨나, 이시이 켄이치로 씨 등 언론인에 의한 야마자키 씨의 입신 스쿠프(특종)가 있었으며, 강제적인 탈퇴설득 사건의 일익을 담당할 입장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오타 도모히사의 저서, 『아리타 요시후의 편향 보도 전속력』, 겐진샤 출판).

『통일교의 분열』에 쓰여진 “스토리”는 반대파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도를 한 이시이 켄이치로 씨의 통일교회 비판과 극히 흡사하며, 이시이 씨의 비판을 일부러 135 페이지(일본어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일교회 반대운동을 펼쳐 온 기독교 관계자를 비롯한 반대파가 통일교회를 비판하는 UCI 에 접근하면서 그 내부에 잠입하여, 하늘의 섭리 방해에 가담하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UCI(소위 “곽 그룹”) 문제의 경위

1998 년 7 월 19 일, 현진 님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보고, 신도 중에는 현진 님이 아버님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인류의 참부모는 영원히 한 쌍이다”라는 것이며, 인류의 참부모에는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2000 년 동안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으로 걸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천일국도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이 영원히 유일한 “인류의 참부모”이시며,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의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8 년 4 월 18 일, 칠남의 형진님께서 가정연합 세계회장에 취임한 무렵부터, 현진 님은 참부모님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모습
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 년 3 월 8 일, 한국·속초에서 아버님은 현진 님에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원리를 배우도록”, “GPF(활동)로부터 1 년 동안 휴식하라” 고 지시하셨지만, 현진 님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같은 해 9 월 11 일을 마지막으로, 참부모님 앞에 모습을 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곽정환 씨도 2009 년 12 월을 마지막으로, 참부모님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0 년 2 월, 현진 님은 GPF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서 아버님은 다시 “GPF 대회를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셨으나, 그 이후에도 대회를 강행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현진 님은 2010 년 4 월 27 일, 가정연합 및 관련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UCI (국제 통일교회,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의 이사회를 탈취하여, 참부모님의 지도와 허가없이 공적 자산을 매각하고, 정관도 개정하여, “국제 통일교회,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의 명칭을 단순히 UCI 로 바꾸어, 통일교회 및 참부모님과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11 년 5 월 25 일, 참부모님은 “참부모님 선포문”을 발표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현진 님을 비롯한 UCI 이사진 (현진 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 대해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 “허락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부모님께 반환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UCI 는 그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참부모님의 지시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진 님과 곽 그룹이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재원(財源)이었던 가정연합 및 관련 단체의 자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2016년 12월 23일, “GPF 및 기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무관한 어떠한 존재 및 조직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기부도 금한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 UCI 측의 자산 처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현진 님은) 창교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창의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하려는”(323 페이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책자를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진 님이 말하는 정체성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모조리 엇갈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2010 년 7 월 16 일, 현진 님을 따르려는 고인 카미야마 다케루 씨에게 “(현진이는) 이미 오래 전에 떠나간 거야, 십년 전에”, “현진이는 선생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 도망치고 있다. 현진이가 선생님의 방향으로 와야 한다는 거야”, “왜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현진이 쪽으로 가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현진 님이) 도망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진 님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교육할 수 없는 채 아버님의 정체성과 다른 내용들을 태연하게 주장하여 “통일교의 당파 (분파)”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평화협회 (FPA)”라는 조직을 출범시켜 “FPA 는 창교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삼고 있다”(314 페이지)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등, 분파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정독함으로써 UCI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이반(離反)시키려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UCI (소위 “곽 그룹”)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http://trueparents.jp/>)」의 게재된 글과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 교리연구원

주의, 참부모님의 말씀 및 교리연구원이 이미 발표한 문장은 「푸른 글자」로 표기하고 UCI (소위 「곽 그룹」)측의 주장은 「갈색의 글자」로 구별합니다.

목차

머리말 / 1

1. UCI 에 의한 참어머님을 알보는 말씀 개찬 / 9

(1) 말씀의 의미를 반대로 번역 / 9

(2) “독생녀”는 아버님의 말씀 / 11

(3) 아버님의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의 질책에 대해 / 12

2. UCI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개설 된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 / 13

3. UCI 를 지지하는 인물에 의한 『교리연구원의 “분과에 의한 말씀 개찬의 문제 (1)”에 대한 반론 (1)』에 대한 응답 / 15

(1) 어머니는 삼팔선 (국경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자의적(恣意的) 해석 / 15

(2)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섭리적인 배경 / 16

4. UCI 를 지지하는 인물에 의한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말씀— 교리연구원의 “분과에 의한 말씀 개찬 문제 (1)”에 대한 반론 (2)』에 대한 응답 / 20

5.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중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虛僞)”를 파헤친다 (1) / 26

(1) “최종일체” 선언 후의 참아버님의 인식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 / 27

(2) 『통일교의 분열』에 쓰여진 “비밀 문서”에 관한 말씀 은폐 / 28

6.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중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2) / 34

(1) 참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 / 34

(2) 현진 님의 “통일교회의 전통”에 관한 정체성의 문제점 / 36

7.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중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3) / 40

(1) 참가정을 참자녀님 가정이라고 하는 잘못 / 40

(2) “삼대권”의 중심은 참부모님이며, 참자녀님이 아니다 / 41

(3) 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축복가정 특별 세미나” 주장의 잘못 / 43

(4) “중생”은 참감람나무이신 “참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45

(5) 축복가정이 얼라이먼트해야 할 존재는 “하늘부모님 - 참부모님”이다 / 47

8.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중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4) / 50

9.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중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5) / 57

(1) 말씀을 오역하고, 어머니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해 한다 / 57

(2) 말씀선집의 원전을 읽고 알 수 있는 진실 / 59

(3) 성훈식은 어머니의 자랑 / 61

10. UCI (소위 “곽 그룹”) 측의 “독생녀”비판에 대한 견해 / 63

11.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논리의 악용에 대해서 / 64

1. UCI 에 의한 참어머님을 알보는 말씀 개찬

(1)말씀의 의미를 반대로 번역

UCI (소위 “곽 그룹”) 속에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참부모의 분열이며, 넘어야 할 시련(삼팔선)이라고 지적하셨다”고 주장하여, 참어머님을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확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 **분열되었습니다.** 1 퍼센트, 0 점 몇 퍼센트의 차이 나도 분열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 (중략) ... “선생님이 타락의 혈통을 상속받았느냐, 깨끗한 혈통을 상속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 (중략) ... 원리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순결이냐, 무슨 결이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거기에 안가려고 그랬어요. 추한 것을 알기 때문. 뭐 선생님의 피가 뭐 어떻다고? 타락 전에 피를 더럽혔나? (2009 년 2 월 28 일), (원문 그대로를 번역)

이와같이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는 것 처럼 번역하지만, 이 번역은 말씀의 전후의 문장을 숨기고, “오역”을 포함시켜 독자를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번역문이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집회를 실시하면서 보급시키고 있는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09~110, 148, 250 페이지 등).

이 말씀은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비판하고 계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순결·순혈·순애의 표상이 되어 거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울이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 **갈라졌지.** 1 퍼센트, 0 점 몇 퍼센트 차이 나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타락할 때 (아담과 해와는)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겨났다고요. 지옥 밀창으로 같이 갔다고요.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원리를 해석도 못 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냐, 무슨 혈이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거기에 안가려고 그랬어요, 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선생님의 피가 뭐 어떻다고? 타락 전에 피를 더럽혔나?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불망나니로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나는) 쇠를 채우고 살았어요. 어머니보고 물어봐요 ……우리 집에서 몇 대 손자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어머니 대신 자랄 수 있는 손녀가 언제 태어나느냐, 그게 내 걱정이라고요. 7 대를 거쳐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아버님이 식구들에게 “너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님은 “순결· 순혈· 순애”에 대해서 식구들의 자세가 잘못되어있음을 『평화신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평화신경』은 “순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식구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어머니보고도 애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머님은 적당히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되는 입장임을 전제로 참어머님께서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 갈라졌지. 1 퍼센트, 0 점 몇 퍼센트 차이 나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번역자는 여기서 “분열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올바르게 번역하면 “(잘못하면) 갈라졌을 것입니다”입니다. 즉, 만약에 제멋대로 갔더라면 “갈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번역자는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타락할 때 (아담과 해와는)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겨났다고요”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갈 때도 함께 가야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참어머님의 말씀(질문)이 아니라, 식구들이 말하고 있는 말(질문)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구들이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선생님도 순결이 아니라 “6 마리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복수)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냐, 무슨 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아버님은 그 직후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불망나니로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나는) 쇠를 채우고 살았어요. 어머니보고 물어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아버님께서 적당히 살아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인하는 분이 바로 참어머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잠시 후, 참아버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몇 대 손자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어머니 대신 자랄 수 있는 손녀가 언제 태어나느냐, 그게 내 걱정이라고요. 7 대를 거쳐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어머님과 같은 여성은 몇대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계셨다면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 대를 거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라는 간증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반대파 번역자는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오역”을 포함시키면서 마치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있다”는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라고 하면서 마치 어머님이 자기멋대로 살면서, 참아버님과 “분열되었습니다. 1 퍼센트, 0 점 몇 퍼센트의 차이 나도 분열되는 거예요” 라고 “오독(誤讀)”시키려고, 그 후에 이어지는 글을 중략한 터 위에, “선생님이 타락의 혈통을 상속받았느냐, 깨끗한 혈통을 상속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개찬)함으로써, 마치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것처럼 번역하여, 어머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개찬, 오역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독생녀”는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 비판”을 확산시키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킨 주장을 합니다.

전통은 단 하나!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과 선생님의 원리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따르면 안 됩니다. 이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머님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영계로 가면, 어머님을 절대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머님이 가는 길은 아버님이 지금까지 세운 말씀과 설교집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어떠한 말씀도 제 2의 말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축복』 1995 년 여름 호, 68 페이지)

그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님은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그 때 어머님한테...다른 제 2의 말씀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리와 상반되는 “독생녀”론을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인물은 “독생녀”의 말씀이 “제 2의 말씀”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독생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참아버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다가는 큰일나는 것입니다. 독생녀(獨生女)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어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그것이 어린양 잔치입니다, 어린양 잔치. (8 대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과 선생님의 원리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선집과 『원리강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에 게재한 생츠퍼리교회 측의 “어머님 비판”에 대한 응답 속에서 교회성장연구원은 “독생녀”의 말씀이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과 선생님의 원리 말씀**”, 즉 참아버님의 말씀과 『원리강론』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게재해 왔습니다.

UCI 를 지지하는 인물은 “**아버님은 ……제 2 의 말씀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리와 상반되는 “독생녀”론을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참아버님께서 명하신 “**선생님이 영계로 가면, 어머니를 절대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3)아버님의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의 질책에 대해

“어머님 비판”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아버님은 성화하시는 50 일 정도 전에, 어머니가 제멋대로 해서, 참어머니가 불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아벨여성 UN 창설 대회)라고,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니를 질책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참어머니의 불재까지 언급하셨다**”라고 “어머님 비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어머님 비판”을 생츠퍼리교회 측도 확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한 응답문은 『세계가정』(2016 년 10 월호)및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2』(15~18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아버님은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의 강연에서 참어머니를 승리한 “**참어머니**”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승리한 “참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여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청중들에게 “어머니 없습니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어머니의 불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중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어머니가 없는 하나님을 믿어 온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어머님 비판”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강연에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니를 모시고**”라고 강조하고 계시며, 참어머니를 모심으로써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 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하고**”라고 지도하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통일교의 분열』의 표현은 더욱 심하며 “아벨여성 유엔 창설 대회에서 창교자(주, 아버님)가 기조연설을 하셨다. 기조연설문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창교자는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면서,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라고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고 원고를 읽어나갔다”(251 페이지)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시킨 악의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생츠퍼리교회와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는 참어머님과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합치하는 부분만을 일부러 인용하거나, 의미가 정반대가 되도록 “오역”을 하는 등, 교묘하게 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참부모님—나”라는 중심 축을 단단히 정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말씀 인용과 오역 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 UCI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개설된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16 년 가을 무렵부터 일본에서 집회를 열고,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일본어 번역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참어머님이 참아버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최종일체”는 조건적인 약속에 불과하며, 아버님이 어머님과 일체화 못한 것에 대해 고심하고 계셨던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또한 오역과 말씀 개찬도 산견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참부모님은 2011 년 5 월 25 일에 “참부모님 선포문”을 발표하시고,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셨습니다. 원래,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도 참아버님께서 발표하신 선포문을 게재하고, UCI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개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축복가정과 교회회원들에게 손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먼저 “선포문 사이트”에 게재한 「참부모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 —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를 발췌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 게재문에서 발췌)

우리 통일가는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창조이상을 완성하고 있었더라면, 실현되어 있었던 세계(천국)란 어떤 세계였을까요? 『원리강론』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양을 닮은 세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하여 그의 사지백체에 전달됨으로써 그 인체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동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원리강론』 49~50 페이지)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인류 전체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이상세계를 실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세계를 되찾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으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참부모로서 승리하신 분이, 문 선명, 한학자 양위분이십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세 자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003 페이지)

그 참부모를 중심으로 통일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화합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중심축이 되는 참부모님의 절대성,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에 대해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무후무한 참부모가 현현한 시대가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400~2401 페이지)

……참부모의 이름은 영원히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참부모, 유교도 참부모, 이슬람교도 참부모, 모든 교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기준입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중생의 기반을 중심으로, 새로운 천국, 지상천상, 천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축복」 1994 년 춘계호, 63 페이지)

모든 승리를 이루신 참부모님은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통일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 일체화를 강화시켜,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문현진 님, 곽정환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UCI 회원이 **참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화합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 UCI 를 지지하는 인물에 의한 「교리연구원의 “분파에 의한 말씀 개찬의 문제 (1)”에 대한 반론 (1)」에 대한 응답

교리연구원은 「참부모님 선포문 사이트」에서, “분파에 의한 참어머님을 알아보기 위한 말씀 개찬 문제 (1) 말씀의 전후 글을 은폐하고, 그 의미를 오독시킨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리연구원의 「분파에 의한 말씀 개찬 문제 (1)」에 대한 반론 (1)”이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의 기망성(欺罔性)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못①] 아버님이 “어머님은 삼팔선의 반대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해석

(1)어머님은 삼팔선(국경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자의적(恣意的) 해석

먼저 UCI 를 지지하는 인물에 의한 반론에 이용된, 그들에 의한 말씀의 번역문을 발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신으로서 순결, 순혈, 순애의 표상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울이 되어 있나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부모를 모시는 사람입니까? 언젠가, 발판이면 발판이 되어 총생축현남의 제물을 내라고 말했는데, 책임자가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 **갈라졌지 (분열되었어요)**. 1 퍼센트, 0 점 몇 퍼센트의 차이 나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타락할 때 (아담과 해와는)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겨 났다고요. 지옥 밑창으로 같이 갔다고요. (『말씀선집』 608 권 302~303 쪽, 2009 년 2 월 28 일)

먼저 위의 말씀 중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교리연구원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가 함부로 살아 오셨는지”라고 아버님이 식구들에게 묻고 계시며 ……이것은 “어머니는 함부로 살아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청중에게 물어 보시고,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아버님이) 함부로 사나.”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가 함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왜 직후에 어머니가 삼팔선의 반대편에 있다는 의미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버님이) 함부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던 아버님이, 이번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은 여기서부터다. 삼팔선은 원래 하나였던 한국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놓은 국경선이다.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머니는 지금 삼팔선(국경선)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주, ()안의 말씀은 교리연구원이 보충>

그러나 이 해석은 자의적(恣意的)이며, 게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인물은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라는 말씀을 왜곡하고 있으며, 논리 전개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즉, 참아버님이 참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어머니는 지금 “삼팔선(국경선)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어머니는 삼팔선(국경선)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머니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삼팔선을 이미 넘으신 아버님은 함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삼팔선을 아직 넘지 않은 어머니는 함부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곡해(曲解)하여, 교리연구원의 「이것은 “어머니는 함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구상하는 “한학자의 불순종”이라는 이미지를 묘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섭리적인 배경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9 년 2 월 28 일이며, 이것은 동년 1 월 15 일(한국), 1 월 31 일 (한국, 미국)에 세 번에 걸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거행된 다음 달입니다.

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우주를 창조하신 후 그렇게도 기다리고 소망해 오신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당신의 대신자요 상속자 되는 지상 실체세계의 참부모를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본인 부부가 황송하옵게도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실체로 서서 만왕의 왕 대관식과 금혼식을 갖게 되어 ……당신의 실체로서 역사하는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 새로운 천법을 세우고**, 만왕의 왕 권한을 갖고 이 지구성을 복귀하는 참사랑의 혁명을 촉진화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운 축복결혼의 전통을 이어 간다면, 이 세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을 찾아 세우는 한 가족권이 될 것입니다. (천일국경전 『평화경』 1604~1606 페이지, 일본어판은 『패밀리』 2009 년 3 월호, 4~6 페이지)

이 대관식에서 참아버님은 “**본인 부부가 ……하나님의 실체로 서서 만왕의 왕 대관식과 금혼식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님만이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로서 **부부가 “하나님의 실체”**로서 서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리연구원은 「이 (2 월 28 일의) 말씀의 잠시 후, 아버님은 “우리 집에서 몇 대 손자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어머니 대신 자랄 수 있는 손녀가 언제 태어나느냐, 그게 내 걱정이라고요. 7 대를 거쳐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어머니를 간증하고 계십니다. 즉, **참어머님과 같은 여성은 몇대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론문 속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문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참어머님이 “함부로 살아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버님과 “분열되었다”고 한다면, 아버님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간증하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은 “함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우리 부부가…하나님의 실체로서 서서**”라고 선언하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9 년 2 월 28 일 말씀에서 직접 어머니를 훌륭한 분이라고 간증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신 약 40 일 후의 4 월 9 일에도 어머니를 간증하고 계십니다.

“통일교회의 여성들 안에, 참어머님의 대신자가 되어 **세계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몇 퍼센트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 통일교회의 참부모는 천주적인 관에서 본 현인신(現人神)입니다**” (『패밀리』 2009 년 6 월호, 16~17 페이지)

이처럼 다시 참어머님을 간증하시면서, 참부모는 “**현인신(現人神)입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달 5 월 1 일에 거행된 “참평화 참부모 UN 안착 대회”에서도 아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특별하고 섭리적인 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만왕의 왕되신 참부모님의 금혼식**을 기념함은 물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창립된지 55 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 월 15 일과 31 일, 세 번에 걸쳐 역사적인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금년 4 월은 본인 **부부가 성혼식을 치룬지 50 회가 되는 달(금혼식)**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인류의 참부모, 참스승, 참 왕의 험난한 복귀섭리노정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0 년, **하나님을 완전해방 · 석방시켜 드리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까지 우리 부부가 걸어온 탕감복귀섭리의 노정을 어찌 다 필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패밀리』 2009 년 8 월호, 6~8 페이지)

여기에서 “우리 부부는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완전해방 · 석방시켜 드리고”라고 있듯이, 참아버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금혼식” 및 “참평화 참부모 UN 안착 대회”의 일련의 식전이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승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은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까지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실 때, 참아버님은 항상 “**우리 부부는**”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아버님 혼자만이 아니라 참어머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생애도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일체가 되어서 걸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과 함께 역사적 승리를 선포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참아버님은 2009 년 4 월 11 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97 퍼센트까지 넘고 3 퍼센트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 월 28 일에 말씀하신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라는 말씀은 이 “**3 퍼센트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0 년 천력 5 월 8 일(양력 6 월 29 일)과 천력 5 월 15 일(양력 6 월 2 일)에 참아버님은 “**최종일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잘못②] 번역의 문법적 해설의 잘못

UCI 를 지지하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교리연구원 “번역의 잘못”을 지정한 부분의 말씀을 살펴 봅시다.

앞에 나온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 갈라졌지 (분열되었어요)”의 부분에서, 사쿠라이 마사미 씨에 의한 번역의 해설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 라고요, 갈라 졌지. “갈라졌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며, “갈라졌습니다” 또는 “갈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밖에 번역할 수 없다. Y 씨가 인용한 “분열했다”도 의미는 비슷하지만, “갈라졌다”가 원문 그대로의 표현이다. 문제는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졌을 것입니다”라고 과거형의 가정형(假定形)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가정의 의미라면 “갈라질 것입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원문은 분명히 과거형이다.

그러나 이 “갈라졌다”, “분열했다”는 적역(適譯)은 아닙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졌을 것입니다”라고 과거형의 가정형(假定形)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가정의 의미라면 “갈라질 것입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원문은 분명히 과거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의 문장을 읽어 보면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의 부분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보라고요”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명령형은 현재 아직 취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해 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가보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현재 아직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해 보라고 명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인물이 번역하는 “갈라졌다”, “분열했다”는 적역(適譯)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쓰신 “갈라졌지”의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후의 문맥 등을 고려해 보면 “갈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갈라질 것입니다”, “갈라졌을 것입니다”가 보다 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졌지”라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가정과거(假定過去)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가고 있었더라면, “갈라졌을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수하게 읽어보면 “갈라지지 않았다”, “분열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참아버님의 진의임이 분명합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연합이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아버님과 참여머님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필사적입니다만, “오역”으로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문장 끝의 “~ 것입니다”는 추정이 아니라 다짐하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상, UCI 를 지지하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번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얼마만큼 말씀을 왜곡하면서 해석하여, 거짓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도(誤導)하려고, 교묘하게 말씀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무리한 말씀 해석을 해서까지 참어머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참어머님의 “**아버님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서 UCI 의 인물들이 참아버님의 곁에서 쫓겨 났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식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9 년 1 월부터 5 월까지의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일체가 되어 뜻을 함께 걸어 오셨던 것이지, 이러한 UCI 를 지지하는 인물들의 정보 조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4. UCI 를 지지하는 인물에 의한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말씀—교리연구원의 “분파에 의한 말씀 개찬 문제 (1)”에 대한 반론 (2)』에 대한 응답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버님은 성화하시기 50 일 정도 전에, 어머니가 제멋대로 해서, 참어머니가 부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며,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2012 년 7 월 16 일)라고 하여, 참어머님을 아버님이 비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이 말씀이, 아버님이 어머니를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말씀을 이용한 “어머님 비판”은 과거에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도 확산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반론은 '세계 가정' 2016 년 10 월호에 이미 게재했습니다. UCI 를 지지하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도 참어머님을 알아보려고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말씀을 “어머님 비판”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잘못①] 참어머님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도 “어머님에게 말씀하셨다”고 언급

UCI 를 지지하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 참아버님이 강연문의 “서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참어머님 비판에 이용합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빨간색으로 기재한 부분은 밑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6 일,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된 아벨여성 UN 창설대회는 아버님의 마지막 대중 연설의 장이되었다 ... (생략)...

나는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의 전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아버님의 연설 부분은 모두 들어 봤다. 그 속에서 어머니가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신 부분만을 소개한다.

검정색은 강연문을 아버님이 읽으신 부분. 파란색은 원고에서 눈을 떼서, 그 자리에서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했다. 문맥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부분은 굳이 <>을 넣어서 빈칸으로 했다. 의역도 하지 않고 거의 직역하면서, 오역이 없도록 가능한 한 노력했다.

본격적으로 강연문을 읽기 전에, 아버님은 두 번 “어머니가 없다”고 언급하셨으며, 강연의 끝 부분에서 다시, 그때는 분명히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다...(생략)...

(강연문을 읽고 계심) A 편의 천지인참부모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도, B 편 아벨여성 연합 창설대회의 기조연설 (강연문을 읽으시는 것을 중단) 아벨여성, 어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다투고 서로 빼앗는 <> 싸우는 이 교단들의 <>과 나라의 권위의 상실을 누가 시정하는가! 아? 내 이름은 용명(龍明). <> 성도 없습니다. 용명, 17살 2월에 예수님이 태어나, 야! 용명 형님, 뜻밖에 예수라는 사람이, 잘생긴 예수가 나타나서...(생략)...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B 편이 아벨여성, 아벨여성, 아벨,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나타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면 누구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번 끄덕이신다)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기조연설 잘 들어 보세요. 선생님의 평생 그 육성은 어머니 자체가 아버지를 쫓아 버리고 천지를 쫓아 버리고 또 <> 집에서 찾아와서 모실 수 있는 교육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재창조해서, 아무리 반대하여, 아무리해도 어머니를 만천하에 하나님의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하나가 되면 창조주의 어머니의 위치에 세워 보자고 철석 같은 천주의 계곡...(생략)...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위 부분에서 「아버님은 두 번 “어머니가 없다”고 언급하셨다」고 하면서, 참어머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딕테이션(받아쓰기)을 하지 않은, 참아버님의 강연문의 “전제”가 되는 설명을 소개한 터 위에, 이에 대해 응답하고자 합니다.

[참아버님의 강연] (주, **굵은 부분**은 강연문, 그 이외는 애드리브(즉흥)로 말씀하신 부분)

대회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30 분을 전제로 하고, 그 결과의 말씀을 시작할 텐데...(생략)...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가 되었지만, 어머니

없는 종교를 믿어왔다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 시간을 폭발시켜 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 비운의 흠집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여기 나타난 ……내 가는 길은 평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략)…

A 편의 천지인참부모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도, B 편의 아벨여성연합 창설대회 기조연설. 아벨여성, 여성.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과 나라의 권위의 상실을 누가 시정해 줄 거야?

내 이름은 용명(龍明)이었어, 성도 없어요. 용명이 17 세, 2 월에 예수가 나타나서 “야, 용명 형님”. 난데없는 예수를 작자가, 잘 생긴 예수가 나타나서 …(생략)…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하자고요. B 편의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나타날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누구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못해서 어머니 잃어버렸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기조연설, 잘 들어봐요. 선생님의 일생의 중요성은 어머니 자체가 아버지를 쫓아 버리고,

천지를 쫓아 버리고, 도망해 온 집에서 찾아와서 모실 수 있는 교육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재창조해서,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어머니를 만천하에 하나님의 …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하나가 됐으면, 창조주의 어머니의 자리에 갖다 세우고야 말겠다는, 철석같은 정주(定州) 골짜기 …(생략)…

이상이 참아버님이 강연문 전체의 “전제”로서 하신 말씀이며,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문제삼은 부분입니다.

이 서두 부분에서, 참아버님은 지금까지 종교가 “어머니가 없는 하나님 “을 믿어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전제”를 감안한다면, “어머니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신관(神觀)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하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어머니가 없다”고 언급하셨던 말씀으로서 문제삼은 부분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벨여성, 여성.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과 나라의 권위의 상실을 누가 시정해 줄 거야?”

여기서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없습니다”는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신관(神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보충을 해보면, “**어머니(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언급하신 말씀을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아버님은 2 번 “어머니가 없다”고 언급하셨다**」고하며, 마치 아버님이 참어머니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두 번째로 참아버님이 “어머니가 없다”고 언급하셨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B 편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나타날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누구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못해서 어머니 잃어버렸어”

그러나 이것도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부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벨 여성 UN 창설대회”의 강연문의 시작 부분에서 아버님은 청중들에게 “제 부인 되는 한학자 총재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한학자 총재와 함께”, “본인 부부”, “참부모”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하면, 이 말씀이 “참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도 그 뒤의 문맥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B 편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나타날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누구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못해서 어머니 잃어버렸어”의 뒤에 계속되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일생의 중요성은 어머니 자체가 아버지를 쫓아 버리고, 천지를 쫓아 버리고, 도망해 온 집에서 찾아와서 모실 수 있는 교육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재창조해서,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어머니를 만천하에 하나님의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하나가 됐으면, 창조주의 어머니의 자리에 갖다 세우고야 말겠다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문맥”으로 보면 이것도 신관(神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어머니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직후,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어머니 잃어버렸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문맥에서 보면 해와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야 했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의 역사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전술한 내용과 똑같이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하면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 나타날 어머니(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버님은 “어머니를 재창조해서,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어머니를 만천하에 하나님의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하나가 됐으면, 창조주의 어머니의 자리에 갖다 세우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②]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번역하여,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비판했다고 주장한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아벨여성 UN 창설대회에서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에게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비난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연문을 읽으심) 여성연합은 창설 당시부터 저와 한학자 총재가 공동 설립자로서 활동하면서 세계 각 대륙 및 국가들의 조직화 활동의 기반을 만들면서, 과거에 세계 160 개국에 파견된 1600 명의 일본 여성연합의 자원봉사 회원을 비롯한 전 세계 회원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들 부부가 20 년전의 본 연합창설시, 천명(闡明)한 메시지, 메시지의 <>를 따라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 (강연문 남독을 중단하시고)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강연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심)

세계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 운동을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되며 …(생략)…

- 인용 종료 -

어머니가 없다고 3 번이나 언급하셨다. 특히 3 번째는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말씀하셨다.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강연문의 내용은 어머니를 간증하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 강연문의 중간에서 아버님은 “문 총재의 아내의 자리도 없다”고 강연문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이상과 같이 말하면서 참여머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문제삼은 부분을 충실히 디테이션(받아쓰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주, 붉은 부분은 강연문, 그 이외는 애드리브(즉흥)로 말씀하신 부분)

여성연합은 창설 당시부터 본인과 한학자 총재가 공동창시자로 활동하며 세계 각 대륙과 나라들의 조직과 활동 기반을 닦아 나왔고, 일찍이 세계 160 개국에 파송된 1 천 6 백 명의 일본 여성연합 자원봉사회원을 비롯한 전 세계 회원들을 중심삼고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20 년 전 본 연합 창설 때 천명한 메시지의 정신을 따라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재의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세계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 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하고 …(생략)…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참여머님은 원래 이 강연문 속에는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그것을 굳이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라고 (“님”을 붙여서)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여머님”이라는 부분은 한학자 여사를 명확하게 의식하신 표현이며, 한학자 여사를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참아버님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인 한학자 여사를 “모시고” (모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의 가려쓰기입니다. 참아버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애드립(즉흥) 부분인 첫부분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로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한학자 여사)”을 “내(참아버님)가 길러 왔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이 승리하신 참어머님을 자랑하고 계시며, 그러한 인류의 참어머님을 키워 오셨다고 자부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지는 “어머니 없습니다”는 그때까지와 달리 “일반 명사”로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승리한 어머니가 없었다 (그러나 한학자 여사가 처음으로 승리한 어머니로서 서게 되었다)라는 뜻이며, 한학자 여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그런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고유명사, 일반명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 모든 단어를 단순히 “어머니”라고 카타카나로 기술함으로써, 마치 한학자 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문 전체의 취지에서 볼 때, 참아버님이 서두의 “전제 부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가 되었지만, 어머니 없는 종교를 믿어왔다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 시간을 폭발시켜 가치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어머니가 없습니다”라고, 그 심정을 폭발시키고 계십니다.

만약 이 부분의 “어머니가 없습니다”가 한학자 여사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직전에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어머님을 모시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셔야 되는 “어머니”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를 “모셔라”고 명하신다는 전혀 의미불명한 논술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문충재의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는 그런 승리한 “참어머님”이 원래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독생녀로서 태어나신 한학자 여사도, “문 충재의 아내”, “참어머님”로서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며, 해야 할 책임분담이 있었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종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봉해 왔지만, 그 아내의 위치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을 신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하나님을 신봉해 온 인류에게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동영상을 보면, 이 때 회장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강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승리한 세계적 여성대표 참여머님을 모시고**”라고 거듭 말씀하신 터 위에, 그 참여머님을 모심으로,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을 정립하여 참사랑운동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결실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강연문 전체의 흐름과 아버님의 진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곡해한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님을 얕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동영상에서 그 전후의 부분을 확인해 보면, 참아버님께서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엄격한 어투로 질책하고 계실 때, 참여머님은 아버님의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이 참여머님 쪽을 보시는 일은 **전혀 없으며**, 회장 전체를 보시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봐도 이 말씀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강연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질책의 말씀은 참여머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이 더 분명해 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질책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강연문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술 한 바와 같이, 강연문의 시작 부분에서 참아버님은 청중들에게 “**제부인 되는 한학자 총재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한학자 총재와 함께**”, “**본인 부부**”, “**참부모**”라는 표현들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고찰해 보면, 참아버님은 승리한 “참여머님”이신 한학자 여사와 함께 승리한 “참부모”로서 이 강연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아벨여성 유엔 창설 대회에서 창교자(주, 아버님)가 기조연설을 하셨다. 기조연설문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창교자는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면서,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라고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고 원고를 읽어나갔다**”(251 페이지)라고,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태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연 전체의 취지와 문맥을 무시한 UCI 를 지지하는 인물들의 악의가 담긴 언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5.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虛僞)”를 파헤친다 (1)

——“천일국 없는 기원절을 출발”은 말쑥은폐(隱蔽)에 의한 악의적인 해석

참아버님은 그 생애 노정에서 참부모로서의 사명 성취를 승리적으로 쌓으시고,

2010년에 참어머님과 “최종일체”를 선언하셨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천지인참부모 정착”을 선포하시고, 또한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3년 천력 1월 13일, 역사적인 “기원절”을 맞아, 실제적 천일국의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6년 가을 무렵부터 일본에서 집회를 하면서 보급시키고 있는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은 “천일국 없는 기원절을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부모님의 “최종일체”와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라는 역사적 승리를 부정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면서 어머님을 알보고 있습니다.

(1)“최종일체”선언 후의 참아버님의 인식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

참아버님은 2010년 6월 19일(천력 5월 8일)과, 동년 6월 26일(천력 5월 1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참어머님과 “최종일체”를 선언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이 “최종일체”의 선언 12일 후인 동년 7월 8일, 한국 천정궁 박물관에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제말씀 선포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2011년) 5월 26일에는 한국 인천에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제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개최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基元節)’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제적 천일국의 시발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한일 대역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제말씀 선포 천주대회』 39-41 페이지, 천일국경전 『천성경』 1446 페이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참아버님께서 세계순회를 하시고 천주대회를 각지에서 개최해 나가시고, 2012년 “참하나님의 날”(천력 1월 1일 <양력 1월 23일>)의 연두표어는 “천지인참부모 승리해방 완성시대”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후, 참아버님은 동년 3월에 참어머님을 일본에 보내시고, “천지인참부모님 승리해방 완성시대 선포대회”를 개최하셔서, 그 대회의 모습을 거문도에서 지켜보시면서, 대회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승리권 위에, 제 53회 “참부모의 날”(양력 3월 22일)에 참아버님은 “하나님과 인류의 책임이 완결되는 하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이나 하면 '천지인 참부모 정착'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투데이즈 월드 재팬』 2012년 5월호, 43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참아버님은 2012년 4월 14일 라스베가스의 천화궁에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최종완성, 완결**할 것을, 아버님 앞에 봉헌합니다”라는 “특별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투데이즈 월드 재팬』 2012 년 6 월호, 19 페이지)

그리고 그 7 일 후의 동년 4 월 21 일에 한국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참아버님은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를 개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가 이 책 (강연문)의 제목입니다. 천지인이 참부모가 되어 정착하는 교재, 교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판을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한 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자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과 부모의 조상 중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의 **영광의 보물 자리에 앉을 사람은, 억천만대에서 단 하나의 부부이며, 둘은 없습니다.** 부부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만국의 왕들,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만왕의 왕은 한 분입니다**” (『KMS 중화신문』 2012 년 4 월 27 일호)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의 강연문을 가지고 거행하신 이 대회에서, 참아버님은 “**영광의 보물 자리에 앉을 사람은, 억천만대에서 단 하나의 부부이며, 둘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일국의 “만왕의 왕”이 단 한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게다가 “**억천만대에서 단 하나의 부부**”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임을 명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을 발표하시고,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를 이루셨습니다.

이상이 참아버님이 참어머님과 함께 2010 년부터 2012 년에 걸쳐서 “최종일체”의 섭리를 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계시는 아버님 자신의 “정착완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는 김종석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은 이와 같은 참아버님 자신의 인식을 무시하고, 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일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과 어긋나는 “허위 스토리”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2) 『통일교의 분열』에 쓰여진 “비밀문서”에 관한 말씀 은폐

① 김종석 씨의 “창교자는 한학자와 일체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만

『통일교의 분열』이 언급하는 “창교자는 한학자와 일체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참아버님의 말씀 “은폐”에 의한 계략적인 언설이며, 잘못입니다. 우선 『통일교의 분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하에 인용합니다.

“(참아버님은) 2010 년 2 월 19 일, 자신의 종교적 이상과 통일교의 목적,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일국’이 2013 년 음력 1 월 23 일(원문대로) “기원절(基元節)”을 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모든 통일교인은

기원절에 천일국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책임을 못한다면 2013 년 음력 1 월 13 일은 천일국 없는 기원절이 되는 것이다. “ (『통일교의 분열』 54~55 페이지. 괄호 () 안의 단어는 교리연구원이 보충. 이하 동일)

“2009.7.12. 창교자 (주, 참아버님)가 한학자를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언급을 함.” (동서, 157 페이지. 주, 이 허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후술함)

“2010 년 7 월 상황에서 ……창교자는 이날까지도 한학자와 일체를 이루지 못한 사실을 토로하고 있었다. ‘창교자와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한학자가 창교자의 뜻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말하며, 참가정의 참된 어머니로서, 참아버님의 참된 아내로서, 인류 앞에 참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동서, 177~178 페이지)

“창교자는 한학자가 자신(참아버님)과 하나 되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근거로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다’는 선포를 했다. 비밀문서의 약속을 지켜지 못하면 창교자의 이 선포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동서, 179 페이지)

“창교자가 한학자에 대해 섭섭한 감정 ……을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시기는 대략 2000 년도 말로 보인다. 섭리에 대한 무지, 창교자를 불신하는 한학자의 태도 등을 언급하면서 창교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한학자가 완성했다는 취지의 언급 후에도 창교자가 한학자의 미성숙과 불신을 강력히 질책하면서 절대복종할 것을 언급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교자의 고심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동서, 245 페이지)

이 『통일교의 분열』의 스토리는 앞에서 설명한 참아버님 자신의 인식과는 다르며, “**참어머님은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주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스토리**”입니다.

김종석 씨는 “참어머님이 완성했다”는 내용의 근거인 “최종일체”를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비밀문서의 약속을 지켜지 못하면 창교자의 이 선포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동서, 179 페이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 자신은 “최종일체”의 선포 후, 천화궁에서 “**최종완성, 완결한다**”라는 “특별선포식”을 하고 계시며, 또한 “**천지인참부모 청착완료**”를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석 씨는 참어머님이 아버님께 절대복종하지 않고 걸어왔다고 논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아버님이 “**한학자의 미성숙과 불신을 강력히 질책하면서**”(동서, 245 페이지) 뜻길을 걸어 오셨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분열』에는 “말씀 은폐”와, 자신들의 주장에 맞도록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악의”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② 말씀은폐에 의한 “비밀문서”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

김종석 씨는 전술 한 바와 같이 “2010 년 7 월 상황에서 ……창교자는 이날까지도 한학자와 일체를 이루지 못한 사실을 토로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서 한국 가정연합의 기관지 “통일세계”의 2010 년 6 월호 10 페이지에서 11 페이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주, 다음 번역문은 『통일교의 분열』에 게재 된 것임)

“보라구요. 천력 2010 년 5 월 15 일 (양력 6 월 25 일), 이것이 넘버 1 입니다. 아리아 (호텔)에서 길을 떠나던 마지막 날에 혼시한 것입니다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입니다. 이것은 밤낮의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력 2010 년 5 월 15 일 오전 3 시 35 분은 무엇이냐? 그때의 사건을 중심삼고 **이후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니가 아버님과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아버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에 공포(公布)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공포한 시간이 천력 2010 년 5 월 15 일 오전 3 시 25 분이었습니다. 여기의 3 시 25 분이 중요합니다. 3 시는 3 시대를 말하고, 25 분은 백 년을 중심하고 4 분의 1 년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계의 종막 전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님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천력 2010 년 5 월 15 일 오전 3 시 25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 분은 100 의 4 분의 1 수에 해당되며, 3 시는 초부득삼(初不得三)의 3 시대를 대표하여 구약·신약·성약시대의 완성·완결·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최종 일체권이 완성·완료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봉헌으로 표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결·순혈·순애의 완비를 보는 아리아 스카이 (Aria Sky) 스튜디오에서 천력 5 월 8 일 (양력 6 월 19 일) 20 분에 발표 완결됨!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가지고 어머니와 완전히 영계에 봉헌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린 시간입니다. ‘완결됨, 아주!’라고 돼 있으니까 끝마친 겁니다”(동서, 177~178 페이지)

『통일교의 분열』은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비밀문서”는 천력 2010년 5월 15일 오전 3 시 25 분에, 참어머님과 아버님이 선언을 하신 것이며,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걸어 가겠다고 **약속한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씨의 기만(欺瞞)은 그의 저서 속에 중요한 “비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김종석 씨가 인용한 한국의 기관지 “통일세계”의 2010 년 6 월호의 뒷부분에는 참아버님이 “비밀문서”라고 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 시 25 분에 어머니(어머님)를 어머니로 정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실체의 어머니, 참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아버님)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자신의 할머니..... 아버지(아버님), 자신의 남편, 가인과 아벨의 아들 둘까지 8 대 남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여성의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선생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 있습니다**. 문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2010 년 6 월호, 12 페이지)

2010 년 천력 5 월 15 일 오전 3 시 25 분,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어머니로 정하시고**, “최종일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비밀문서”의 핵심부분입니다.

김종석 씨는 비밀문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선포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교의 분열』 179 페이지)고 말하지만, 참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석 씨는 “.....8대 남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여성의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선생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 있습니다**. 문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의 부분을 가지고, 비밀문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선포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어머님이 선생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8 대 남성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여성의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 시 25 분에 어머니(어머님)를 어머니로 정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문서가 지켜지는 것을 “어머니로 정하는” 조건으로 삼다 등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어머니로 정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김종석 씨의 문제점은 그 후 아버님이 “정착완료”를 선포하신 것을 무시하고 논의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2013 년 천력 1 월 13 일, 참아버님이 **이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실체적 천일국을 출발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에는 “천지인참부모님 천일국 즉위식”,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이 거행되었으며, 천일국의 출발이 선포되고, 동시에 “기원절 입적축복식”에 참가한 축복가정들은 천일국에 입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국에 입적한 축복가정들은 “기원절 천일국 국민증”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③ 참아버님이 “**한학자을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허위(虛僞)

또한 김종석 씨는 『통일교의 분열』에서 “**2009.7.12. 창교자 (주, 참아버님)가 한학자를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언급을 함**” (157 페이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통일교의 분열』을 이하에 인용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대번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한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내가 울타리를 해줘 가지고 소생시대부터 국가 해방권까지도 어머니를 보호해줄 책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되는 그것이 자기 울타리권과 대등한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울타리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 참종의 부인 자리도 못 되가지고 쫓겨 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 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의 분열』 157 페이지, 말씀선집 614-28)

이상의 내용을 읽으면, 이 말씀은 참어머님에 대한 참아버님의 충고처럼 읽을 수 있으며, “제멋대로 살아 오신 어머님”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라고 화를 내시는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문장을, 그 전후를 포함해서 다음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협조할 수 있는 승리적 기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가운데 없어요. 선생님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돼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묶어 나왔지, 다른 무엇이 없어요. 내 말이 없고, 내 주장이 없어요.

소제목: 어머님을 울타리 해주며 보호해 주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천법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대번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한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내가 울타리를 해줘 가지고 소생시대부터 국가 해방권까지도 어머니를 보호해줄 책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되는 그것이 자기 울타리권과 대등한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들어 준 울타리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 참종의 부인 자리도 못 돼 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 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회 여러분이 그래요”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다는 언급을 함”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분열”의 번역문을, 교리연구원의 번역문과 비교해서 검증합니다.

(『통일교의 분열』의 번역)

어머님이 어떻게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どうして=왜/Why’)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일본어판에서는 ‘立てますか=세울 수 있습니까’)

(교리연구원 번역)

어머님이 어떻게(일본어 번역판에서는 ‘どのように=어떤 방법으로/How’)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일본어 판에서는‘出ますか?=나아갈 수 있습니까?’)

『통일교의 분열』(일본어판)이‘どうして=왜/Why’라고 번역 한 원문은 한글로 ‘어떻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Why’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모두,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이유로 오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의 정확한 의미는 ‘Why’가 아니라 “How”이며, 일본어로는 ‘どのように’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머님을 어떻게(How)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상황, 방법 등을 물어 보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立てますか=세울 수 있습니까’라고 일본어로 번역한 원문을 보면 한글로 ‘나가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는 ‘立てますか=세울 수 있습니까’라고 번역하면서 물음표(?)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어떻게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どうして=왜/Why’)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일본어판에서는 ‘立てますか=세울 수 있습니까’)”라는 번역문을 읽으면, 마치 참어머님의 불순종한 모습에 참아버님이 고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를 부정해서 하시는 심각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글의 ‘나가나?’는 ‘나가다(동사) +나? (질문)’의 형태입니다. ‘나가다’는 동사이며, 일반적으로 ‘나온다/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우다’는 오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문형이지만, 이것은 조금 놀랐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가나?’는 ‘出ますか?=나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적역(適役)입니다.

이 “어머님이 어떻게(일본어 번역판에서는 ‘どのように=어떤 방법으로/How’)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일본어 판에서는‘出ますか?=나아갈 수 있습니까?’)”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한 터전 위에, 참아버님께서 “어미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나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 일본어판은 물음표(?)를 생략하고 ‘立てますか=세울 수 있습니까’라고 “오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교의 분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여러분이 그래요**”의 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감으로써 참아버님께서 지적하시는 “망령된 행동”의 인물이란 참어머님이 아니라 “**통일교회 여러분**”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통일교의 분열』의 “**창교자가 한학자를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언급을 함**”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잘못”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참아버님이 **참어머님 이외의** 통일교회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 “**어머님 밖에**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폐”와 “오역”은 김종석 씨 및 번역자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참어머님을 깎아내리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통일교의 분열』을 책략적으로 저술, 출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어머님을 알아보려는 불순한 동기로 행해진 그들의 말씀 악용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6.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2)

——김종석 씨가 주장하는 '정체성'의 잘못(1)

(1)참부모가 존재하지 않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

김종석 씨가 『통일교의 분열』에서 말하고 있는 “통일교회의 핵심 정체성”의 부분을 이하에 인용합니다.

통일교의 핵심 정체성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표어로 집약된다. 이 표어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혈연관계의 대가족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문현진은 통일교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통일교 전통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첫째, 그는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그의 인식은 복귀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창교자와 한학자를 신격화하려는 기존 통일교 신학을 비판한다**” (62~63 페이지. 참고, 굵은 글자 및 방점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와 같이 『통일교의 분열』은 통일교회의 핵심 정체성을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 세계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혈연관계의 대가족세계를 지향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하에 『원리강론』 및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원리강론』 49~50 페이지)

“개성을 완성하여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대로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죄 없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한 부모를 중심한 대가족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었을 것이다”(『원리강론』 111 페이지)

“채림하시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의 대가족의 이상세계”(『원리강론』 567 페이지)

“천운은 세계가 한 울타리요 인류가 하나의 지구가족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참부모 아래 한 형제라는 자각이 있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 아래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서로 위하고 화합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참부모경』 303-304 페이지)

“『메시아 없이 직접 하나님에게 가면 되지, 왜 메시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지상천국의 중심이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안 나오면 천상천국도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패밀리』 1982년 9월호, 10 페이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고 완전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로서,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8대 교재 교본『천성경』 2316 페이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세계란 상술한 『원리강론』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참부모님 아래 한 가족세계”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은 “창교자는 가정연합 창설과 함께 종교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이루어나가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사명이 완수된 상태는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가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46~48 페이지)라든지, 한 가족세계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혈연관계의 대가족세계를 지향한다”(63 페이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언설은 말씀 및 『원리강론』과 엇갈린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의 핵심 정체성”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가족세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성취되고, 모든 인간이 원죄없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어서 인류 한 가족세계가 실현되면, 분명히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세주”가 필요없는 이상세계가 실현되어도, 그 이상세계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참부모님을 기초로 하는 세계이며, 인간시조의 입장인 “참부모”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종석 씨가 말하는 현진 님의 “참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One Family Under God”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현진 님의 “통일교회의 전통”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점

문제점①—“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다”고 하는 잘못

김종석 씨는 “통일교의 전통”에 관한 현진 님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선, 『통일교의 분열』에서 현진 님의 정체성을 인용합니다.

“첫째, 그(문현진 님)는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63 페이지)

과연 이 주장은 옳을까요? 『원리강론』 및 말씀을 이하에 인용합니다.

“만일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서 ……드렸더라면, 그때에도 그들이 세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 위에서 오신 바 메시아를 충심하고 복귀섭리는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리강론』 253 페이지)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 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축복 가정과 이상천국 (I)」 36 페이지)

이상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김종석 씨가 말하는 현진 님의 정체성과 아버님의 말씀 사이에는 명확한 “불일치(엇갈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귀섭리는 타락한 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귀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종석 씨의 주장 중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라”라고 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리강론』은 “메시아를 충심하고 복귀섭리는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말씀에도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 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라고 있는 것을 보면,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만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참부모”를 되찾기 위해서, “참부모” 자신이 책임을 다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복귀섭리의 중심은 “참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리강론』은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책임분담으로써 그에 필요한 탕감조건을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247 페이지)라고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시조의 입장으로 오신 “참부모”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석 씨는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라**”라고 부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현진 님의 정체성”의 주장은 참아버님이 지향하시는 이상세계와 다른, “참부모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 ②— “창교자를 하나님의 실체로 숭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잘못

『통일교의 분열』은 “둘째, 문현진은 ……종교적 구원론의 한계 안에 창교자를 가두어 버리는 통일교의 종파적 교리와 정체성을 비판하였다. 통일교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과 한몸을 이룬 존재, **하나님의 실체로 숭배했던 것과 달리**, 문현진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아들’로 인식하여 창교자를 이러한 차원의 메시아로 정의하고 있다” (63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주, 현진 님)의 인식은 복귀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창교자와 한학자를 신격화하려는 기존 통일교 신학을 비판한다**” (동서, 63 페이지)고하며, 통일교회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과 한몸을 이룬 존재, **하나님의 실체로 숭배**”(동서, 63 페이지)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아버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보면 체(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체를 입지 않고는, 체를 갖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할 텐데, 그 체를 입는 대표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해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체를 가진 하나님, 즉 영원한 무형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입고 나타난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세계를 통치할 책임이 아담과 해와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124 페이지)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하나님은)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신경』

이상의 말씀으로 볼 때,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참부모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셔서, 참부모는 “**실체의 하나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석 씨는 “문헌진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아들**’로 인식하여 창교자를 이러한 차원의 메시아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주장은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참아버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석 씨는 “통일교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과 한몸을 이룬 존재, **하나님의 실체로 숭배**”해 왔다고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강론』은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재림주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완성부활섭리는 신·구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새 말씀(성약의 말씀)을 인간들이 믿고 또 **추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시의시대(侍義時代)**라고도 한다” (192~193 페이지)

김종석 씨는 참부모님을 “숭배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원리강론』의 설명처럼 완성부활섭리란 직접 메시아(참부모)를 모시고 의로움을 받는 **시의시대**이며, **모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통일교회(가정연합)는 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지, 김종석 씨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분열』을 검증해 보면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일교회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동서(同書)의 “통일교회의 정체성”이 현진 님이 이해하는 “통일교회의 정체성”을 근거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현진 님이 이해하시는 “통일교회의 정체성”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도,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강론』과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인류의 참부모로 세워** 합성일체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들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다면 ……하나님의 3 대축복 완성에 의한 **지상천국은 그 때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원리강론』 237 페이지)

“여러분 각자의 혈통적 내용이 다르고 배후가 다를지라도 부모와 닮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접붙이려면 여러분 자체가 남은 탕감노정을 다 청산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청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부모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1741 페이지)

“이 세상에 하나의 참감람나무 표본을 보내자 하는 것이 메시아사상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메시아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사탄세계가 부부를 중심삼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혼자 와서는 참감람나무가 못됩니다. 메시아 참감람나무와 메시아의 상대는 참감람나무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야만 참감람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천일국경전 『천성경』 184 페이지)

위의 말씀을 요약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며, 그 3 대축복을 완성하려면 참아버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재림주는 “어린양 잔치”를 이루고 “참부모”가 되지 않고는 창조목적을 성취 할 수 없습니다.

김종석 씨는 “문헌진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아들’로 인식하여 창교자를 이러한 차원의 메시아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참부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언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술한 말씀 속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고 완전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로서,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316 페이지) 라고 있는 것처럼,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중심삼고는 천국(천일국)은 연결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아버님과 함께 참어머님도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오셨으며, 지금도 뜻을 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통일교의 분열』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조작하여, 어머님의 존재를 알보려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상, 이 책이 말하는 “통일교회의 정체성”이 현진 님의 주장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서적을 적극적으로 보급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은 현진 님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참아버님의 사상과는 모조리 엇갈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이렇게 한쪽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만약 어떤 기회에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소개한 참부모님 자신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시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3)

——김종석 씨가 주장하는 '정체성'의 잘못 2

문제점 ③— “참가정의 정체성”의 잘못

(1)참가정을 참자녀님 가정이라고 하는 잘못

먼저 문제가 되는 『통일교의 분열』 부분을 인용합니다.

“문헌진은 ‘참가정’의 가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가정을 통일교 창교자(주, 참아버님)의 직계가정으로 정의하면서도 ‘확대된 참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참가정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님→참부모→참가정→확대된 참가정’으로 연결되는 절대자 혈통의 확대과정에서 창교자 참가정(직계가정)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참가정’은 완성해야 할 복귀섭리의 1 차 목적이며, 참부모 출현의 이유였고,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상(理想)이다 ……참가정은 인류를 대표하는 가정이자 인류의 모델적 가정이며, 복귀섭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상 실현을 위한 실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64 페이지. 굵은 글자는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하 동일)

“현재 문헌진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참부모→참가정→확대된 참가정(축복가정)’으로 이어지는 혈통복귀의 가치를 고수하며, 초종교적인 봉사와 이상가정 실현을 위한 평화이상세계 실현운동을 'One Family Under God'의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헌진도 참가정(창교자의 직계가정)의 혈통이 전 인류에게 전수되는 (어떤) 의례로서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2015 년 8 월, 미국 씨애틀에서 축복결혼식을 주관했다고 한다. 추측건대 그는 창교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혈통복귀를 위한 전통이나 의례를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의례로 디자인하여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66 페이지)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참아버님(창교자)→참가정(문헌진가정)→통일교 축복가정→인류’로 이어지는 ‘혈통복귀신앙’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315 페이지)

그들은 “참가정의 정체성”을 “직계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참가정=직계가정”이야말로 “복귀섭리의 1 차 목적”, “참부모 출현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이상”, “인류를 대표하는 가정”, “모델적 가정”,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실체화하는 가정”, “전 인류에 접붙이는 가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참가정의 정체성”은 참부모님이 절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 자녀의 제 3 대인 **참자녀님 가정이야말로** “참가정=직계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진 님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꿈의 실현”에서도 “**축복가정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참부모님, 그리고 참가정의 종적인 축에 연결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분열』 65 페이지. 주: “하나님의 꿈의 실현”은 244 페이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참부모님”과 “참가정”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진 님은 2011 년 12 월 1 일 한국 GPC 에서도 “**참부모와 참가정의 출현은 아담 해와 가정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 본연의 참사랑 모델 가정을 회복하여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다**” (『통일교의 분열』 302 페이지) 라고 말하면서, “참부모”와 “참가정의 출현”을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참가정”이란 “**직계가정=문현진 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서(同書) 315 페이지).

그런데, 참아버님은 참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가정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참아버지· 참어머니· 참남편· 참아내· 참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사랑의 가정 기반입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154 페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가정라고 말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참아버지”, “참어머니”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부모를 절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참가정=문현진 가정”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2)“3 대권”의 중심은 참부모님이며, 참자녀님이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참가정의 “3 대권”의 중심은 인류의 참부모이신 “조부모”(참부모님)라는 점입니다.

3 대권의 중심은 자녀님도 손자님(제 4 대)도 아닙니다. [도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3 대 왕권이 참부모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3 대권”인 것에 대해서 참아버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부부가 3 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상징하고, 부모는 현재를 상징하고, 자기 부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영계의 특권대사로서 자기 집에 보내진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가정은 번창합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348 페이지)

“하나님은 조부모의 자리요, 아담은 부모의 자리요, 자녀는 아들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3 대가 한 가정에 안착하게 되면 조부모는 천상천국의 하나님의 자리이자...” (『평화신경』 267 페이지)

또한 『원리강론』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 (49~50 페이지)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창조이상을 완성한 세계(천일국)의 영원한 중심은 하나님과 완전 일체가 된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며, 그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동하고 정하게 되는” 세계야말로 이상세계입니다. 그 중심은 참부모이며, 참자녀님이 아닙니다. [도표 2].

현진 님은 본연의 혈통이며 “참가정”의 일원이긴 하지만, 뜻의 중심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악역사의 탕감복귀도, 인류의 구원도, 천주의 재창조도, 인간 시초의 입장인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 완결, 완료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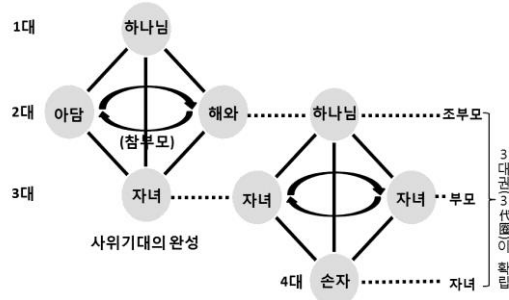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곳에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의 영원한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완전일체가 되신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입니다. 따라서 참가정의 3 대권(3 대 왕권)은 참부모님과 직결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참가정 안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실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직계가정인 “참가정(문현진 가정)”이야말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실체화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혈통”은 “하나님→참아버님(창교자)→참가정 (문현진가정)→통일교 축복가정→인류” (315 페이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축복”이 참부모님께 “접붙임”(중생) 됨으로써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정=직계가정”인 자녀님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통해서 타락인간의 혈통복귀가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되는 것 같은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잘못된 언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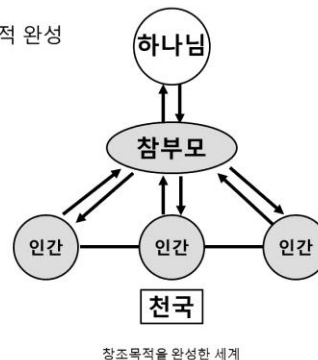
현진 님은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5 년 8 월, 미국 씨에틀에서 축복결혼식”(『통일교의 분열』 66 페이지)을 거행했습니다. 그 언행을 봐도 “참가정의 정체성”이라는

삼대왕권(三大王權)



【도표 1】 "삼대왕권(三大王權)" 및 참가정의 "3대권(3代權)"

【도표 2】 창조목적 완성



잘못된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참가정의 정체성” 때문에 『통일교의 분열』은 “(지금 이대로 가면) 한학자 이후의 통일교는 참가정(직계가정) 없는 통일교가 될 것이 분명(하다)” (321 페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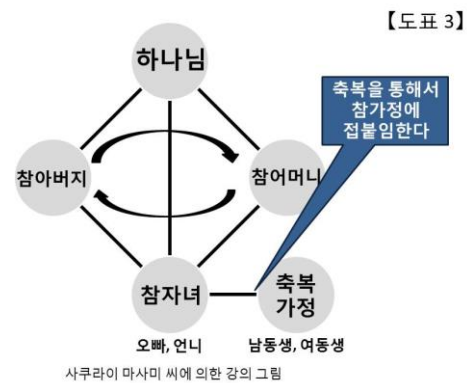
(3)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축복가정 특별 세미나” 주장의 잘못

UCI 측이 개최하는 “축복가정 특별 세미나”의 하후데이(Half-Day, 반나절 세미나)에서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도표 3]를 사용하면서 “축복을 통해서 참가정에 접붙임 받는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 3]에서 “축복을 통해서 참가정에 접붙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참가정”이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자녀님 가정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현진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하후데이 세미나의 DVD 제 1 권의 11 분 50 초 썸부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 디테이션).

“참부모님만으로는 축복을 할 수 없다. 참부모님에게 참자녀님이 있어야 드디어 축복을 행할 수가 있다. 참가정에 축복을 통해서 참가정에 접붙임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말 자체도, 참자녀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절대적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 참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지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타락의 후예인 60 억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흑인도 백인도 예외없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요건입니다.” (『말씀선집』 478-285)

또한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DVD 제 1 권의 23 분 53 초부터 “아버지의 혈통과 권위를 대표하는 장자가 서게 됨으로써, 아버님 일대에 지상천국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승하는 아버지의 혈통과 권위를 대표하는 장자가 서게 됨으로써, 섭리적 중심인물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이상세계를 만드는 그 섭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통일교의 분열』과 동일합니다. UCI 측은 “축복을 통해서 참가정에 접붙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참가정이란 현진님 가정이며, 그 자녀님 가정에 접붙임됨으로써 “혈통복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인용한 말씀선집의 말씀(478-285)은 참아버님이 2004년 12월 2일에 말씀하신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원”의 강연문을 아버님 자신이 해설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참가정”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참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가 된 “강연문”을 이하에 인용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절대적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 참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타락의 후예인 60억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심정적인 접붙임은 물론 혈통적인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타락성을 받고 태어난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백년 천년을 기다려도 참감람나무로 바뀌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감람나무로 남을 뿐입니다”(2004년 12월 2일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망” 강연문, 천일국경전 『평화경』 1539페이지)

사쿠라이 마사미 씨는 상술한 강연문 가운데서, 아버님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까지 설명하신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쿠라이 씨가 인용하지 않은 뒷부분에, 아버님이 “접붙임”에 대해서 해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하,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주, 강연문은 붉은 글자, 그외의 부분은 강연문에 대한 아버님의 해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류는 죄악 된 사탄세계와 완전히 절연하고…』 끊고『참감람나무 되는 참부모를 통해 참감람나무의 싹을 심는…』 접붙이는 거예요. 『결혼축복을…』 오늘 축복받았지요? 『받아 참된 혈통을 출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된 참혈통은 참감람나무 열매인 참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 낳았어요? 문제입니다. 무슨 종교니 무엇이니, 무슨 나라니 무엇이니, 여기에 합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타락 인간으로서는 이 길만이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참된 생명, 참된 사랑, 참된 혈통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늘나라든 이상세계든 평화든 찾을 수 없어요.

『이처럼 참된 자녀가 태어나고 참된 부모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곳에는 참된 가정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정착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참가정주의가 창출됩니다.』……”(『말씀선집』 478-286)

참아버님은 “메시아의 참가정”에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시고, 그 대답으로서 “타락한 인류는 죄악 된 사탄세계와 완전히 절연하고 참감람나무 되는 참부모를 통해 참감람나무의 싹을 심는”이라고 강연문을 읽으신 직후, “접붙이는 거예요”라고 해설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메시아의 참가정”이란 “참감람나무”이신 “참부모님”을 의미하며, 자녀님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가정을 “직계가정”이라고 정의하는 “참가정의 정체성”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중생”은 참감람나무이신 “참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참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인간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하여는 ……창조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이 지상에 ‘생명나무’로 오서 가지고 모든 인간을 그에게 접붙이어 하나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생명나무’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다” (『원리강론』 74 페이지)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결혼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평화신경』 34 페이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메시아의 참가정”에 접붙임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참가정은 참자녀님 가정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이신 참부모님입니다. 축복은 참감람나무이신 참부모님에 접붙임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통해 참가정에 접붙임되는 것”이란 “직계가정의 문헌진님 가정에 접붙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언설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을 통한 “중생”에 관한 말씀을 『원리강론』 및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에서 인용합니다.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234 페이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영육 아우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동서, 237 페이지)

“부모와 닮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뒤넘이쳐서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청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 517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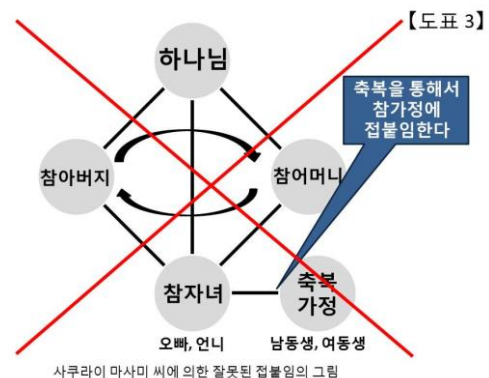
이 말씀은 타락인간이 “참부모”에 의해서 중생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중생과 원죄 청산에 대해서 “영육 아우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한다고 논합니다. 이 타락인간을 중생시키는 “영육 아우른 참부모”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이신 참부모님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에는 “부모와 닮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참부모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타락인간이 중생되어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부모님에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결코 참자녀님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이야말로 “참감람나무”이시며, “참가정”의 절대 중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참어머님이 성화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축복”의 절대 중심은 영원히 하나님과 참부모님이며, 혈통 전환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참부모님이 천상·지상천국의 영원한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의 분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금 이대로 가면) 한학자 이후의 통일교는 참가정 없는 통일교가 될 것이 분명(하다)” (321 페이지)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부모를 절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참자녀님 가정에 얼라이먼트(방향을 맞춰서 하나됨) 하는 것만을 역설하면서, 참부모님 부재의 “참가정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잘못된 언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도표는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참부모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이며, 참부모님을 통해서만 타락인간은 중생되며, 새롭게 참된 자녀로서 탄생하여, 참가정(축복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도표는 축복가정의 위치가 참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참자녀님만을 호시는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참자녀님 가정인 문헌진님 가정(참가정)에 접붙임 된다는 잘못된 설명까지 하고 있는



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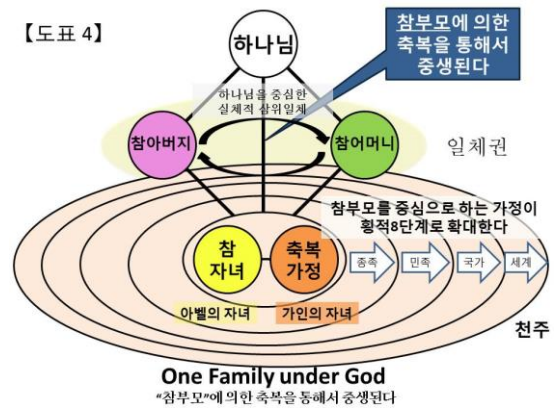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참가정을 “참자녀님 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에 의한, 참부모를 절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참가정의 정체성”은 참부모님의 성화 후의 지상의 “통일가”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식구만이 아니라, 입교한지 오래된 선배들까지도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참부모를 절대 중심으로 삼지 않는 “참가정의 정체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5) 축복가정이 일라이먼트해야 할 존재는 “하늘부모님-참부모님”이다 -사쿠라이 세츠코 씨의 “신앙고백” 동영상의 문제점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주장하는 “참자녀님 가정”에 “접붙임” 받는다는 잘못된 이해에 의한 도표를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도표 4]처럼 될 것입니다.

“축복”에 의한 “접붙임(중생)”이란 어디까지나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참자녀님이 아닙니다. 가정연합에서의 탈퇴를 표명한 사쿠라이 세츠코 씨(43 쌍)는 UCI 가 공개한 동영상 속에서 【도표 4】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사미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말인데요, 현진 님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제 1의 책임은 우리 43 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43 쌍 축복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배 속에 계셨던 분이 현진 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3 쌍에 있어서는 (현진님이) 직접적인 형님(오라버님)입니다”



사쿠라이 세츠코 씨가 이렇게 말했던 배경에는 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강의에 나오는 도표 속에 “축복을 통해서 참가정(참자녀님 가정)에 접붙임 받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며, 게다가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거듭남)에 관한 이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해 버린 우리는 글자 그대로 완성한 아담의 몸속의 씨알의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 및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참자녀와 일체화함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양자(兩者)는 모두 복귀된다는 원리가 있으므로, 이 원리에 의해 우리들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벨의 입장인 참부모, 죄 없는 참자녀와 일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일체화함으로써 우리는 복귀된 자녀로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여성은 모두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와 그 참딸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성은? 참부모와 그 참아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말씀선집』 55-116,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④』 107~108 페이지)

사쿠라이 세즈코 씨는이 이 말씀에 따라서 “**현진 님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제 1의 책임은 우리 43 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복가정이 참자녀님과 일체화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어머니**”의 태증을 통과해서 “**참아버지**”의 골수 속에 있는 씨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참자녀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접붙임)에 대해서 참아버님이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뼈속과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511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참어머니**”의 태증을 통과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참자녀님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988 년의 6500 쌍 축복, 심지어 세계적 축복인 3 만쌍, 36 만쌍, 4000 만쌍,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축복에 있어서, 항상 참자녀님이 “참어머니”의 태중에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6500 쌍 이후의 축복에서도 중생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생(접붙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제적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렇게 해서 거듭난 축복가정은 가인의 자녀가 되고, 직계의 아벨 자녀님과과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됩니다.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자녀님 가정과의 얼라이먼트를 역설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얼라이먼트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입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로서,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316 페이지)

참아버님이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참부모님-축복가정”라는 식으로 우리를 중생(접붙임)해주는 참부모에게 제대로 얼라이먼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그리는 [도표 3]은 『원리강론』이 말하는 “창조목적 완성”을 나타내는 [도표 2]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한 가족 세계(One Family under God)”를 표현하는 [도표 4]는 [도표 2]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조이상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원리강론』 49~50 페이지)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쿠라이 마사미 씨가 그리는 도표는 자녀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 손자, 증손자로 몇 세대를 거쳐도, 또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경과하더라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절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원리”의 가르침이며, 불변의 원리원칙인 것이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중심”이 참자녀님, 손자님, 증손자님으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심”이 변해 간다면, 그 세계는 분열과 투쟁의 세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란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변식하여** 그 사랑의 가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된 사랑의 가치는 하나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551 페이지)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의 세대도, 그리고 손자도 증손자의 세대도, 몇 세대가 지나도,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한 가족 세계(One Family under God)”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횡적 8 단계로서 확대되는 세계**이며, 우리가 עלי이먼해야 하는 “종적 축”은 영원히 **하나님과 참부모님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의 “참자녀님 가정”에 עלי이먼트한다는 [도표 3]은 축복가정의 위치가 하나님-참부모님에 עלי이먼트하고 있지 않는 뿐만 아니라, 참자녀님으로부터 손자님, 그리고 증손자님으로 세대가 변할 때마다, “하늘의 조부모님”, “하늘의 증조부모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 버리며, **그 “중심”도 변천해 버린다는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부모”에서 참자녀, 참손자로 세대가 변할 때마다, 그 중심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도표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세대가 변할 때마다 “섭리의 중심”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찾아 나가고, 계속 방랑해야 하는 인류가 되어 버립니다.

사쿠라이 세츠코 씨는 가정연합에서의 탈퇴를 표명하는 동영상 속에서, 『원리강론』의 종말론에 나오는 다음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터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종말기의 환경 속에서 썩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47 페이지)

『원리강론』의 이 기술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의 섭리로의 비약, 그리고

신약시대에서 성약시대의 섭리로의 비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났다면 그 “중심”이 변하는 일은 2 번 다시 없습니다. 참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부모,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라는 이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에덴동산에서 출발되어야 했던 영원한 미래의 천국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역사적이에요, 시대적이에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현재·미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보게 될 때, 이 땅 위에 현현한 참부모는 우주의 중심을 결정하는 중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27 페이지)

사쿠라이 세즈코 씨가 『원리강론』의 종말론에서 “새 시대의 섭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일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참부모님으로부터 현진님 가정으로 그 “신앙의 중심”을 바꿔 버렸기 때문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영원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그 이외의 곳에 “신앙의 중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2009 년 3 월 8 일, 소위 말하는 “속초 사건” 때, 참아버님은 현진 님에게 “현진이 너도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를 따라다녀!” (『말씀선집』 609-133), “효율이!(「예.」) 지금 조치한 것을 다 알겠지?(「예, 다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하고…(「…현진님은 유 피 에프(UPF) 회장과 지 피 에프(GPF)에서 1 년간 쉬시고, 김기훈 목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현진님은 그동안 참부모님에 대한 공부와 가인 아벨의 관계를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김기훈이 현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장이 돼 가지고, 현진이가 모시고 협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말씀선집』 609-1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현진 님의 정체성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만, 참아버님께서 현진 님을 교육하려고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 잘못된 “참가정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8.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4)

—— 김종석 씨가 주장하는 “정체성”의 잘못

[문제점 ④— 축복가정을 “양자 양녀”라고 하는 잘못]

우선 김종석 씨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문현진의 혈통인식에 있다. ……문현진은 자신을 하나님의 혈통이 복귀된 인류 최초의 참가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혈통을 절대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축복가정을 참가정에 ‘접붙어져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확대된 참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양자 양녀의 가정**이라고 인식한다” (65 페이지. 주: **굵은 글자**는 교리연구원에 의함.)

상술 한 내용에 따르면 “참가정을 참부모님의 직계가정”이라고 정의하여, 축복가정을 “확대된 참가정이며, 양자 양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참부모→참가정→확대된 참가정”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원리”와는 엇갈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에 『원리강론』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 기독교 신도라 할지라도 육적으로 내려오는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혈통이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이다**” (396~397페이지)

이처럼 영적 참부모이신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을 통한 신약시대의 구원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미 “양자”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원리강론』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타락인간의 “원죄청산”을 이루어, 타락인간들로 하여금 장성기 완성급을 넘게 하여 하나님의 혈통으로 중생시키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원리강론』은 명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목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혈통관계가 끊어진 타락인간을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려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원죄 없는 독생자로 오셔서, 타락한 온 인류를 그에게 접붙이여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벗고 **하나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복귀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마저 불신으로 돌아갔으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에 서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셔야 한다” (395~397 페이지)

이와같이 재림주는 타락인간의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에 의한 구원이란

신약시대의 “양자 양녀”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영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참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로 연결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상천국에 살던 부부들도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참부모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정들이 거짓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본연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가정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된 참가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171~2172 페이지)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가정맹세의 7 번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본연의 혈통과**’입니다. **본연의 혈통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타락과 전연 인연 없는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우리 세계는 심정문화세계입니다” (동서(同書), 2391 페이지)

김종석 씨는 현진 님의 인식을 바탕으로 참부모님의 축복에 의해서 “혈통전환”된 축복가정에 대해서 그들을 “**양자 양녀의 가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자 양녀란 핏줄이 연결된 직계가 아니라 혈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직계가정과 생물학적 의미의 혈통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자 양녀의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강론』에 나와 있듯이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서 “혈통전환”된 축복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혈통과 연결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님과 축복가정은 같은 참부모에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이며, 같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김종석 씨가 말하는 현진 님의 정체성의 “**축복가정을 참가정에 ‘접붙어져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확대된 참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양자 양녀의 가정이라고 인식한다**” (『통일교의 분열』 65 페이지)라는 주장은 원리적으로도 참아버님 말씀의 관점에서 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복가정은 “**확대된 참가정**”이 아니라, “**황족**”으로서의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에 혈통적으로 연결된 일원입니다.

참아버님은 “**참부모의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혈통이 연결된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참부모 참자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타락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은 것이 축복가정입니다**” (천일국경전 『천성경』 929 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으며 축복으로 “혈통전환”된 축복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참부모 참자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석 씨가 현진 님의 인식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의 “양자 양녀”가 아닙니다.

『원리강론』에는 “가정은 부모가 있음으로써만 이루어지며, 또 거기에서만 진정한 형제애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의 부모 되신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전인류는 하나의 정원에서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단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41 페이지)라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복가정을 참부모님과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양자양녀로서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영적 구원”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입장이며, 참된 형제애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분열』은 참부모님의 사상과 다른 내용을 태연하게 말하고 있으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양자 양녀” 주장의 근원은 현진 님의 인식에 있다는 것이며, 현진 님의 인식 자체가 참부모님의 사상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입니다.

덧붙여서, 곽정환 씨는 “우리 양자 양녀인 축복가정은 직계의 참자녀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가정』 2000 년 동계호, 110 페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자녀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선생님이 접붙여 주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완성기준에 올라가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일체가 되어 나간다면, 무난하게 그 고비는 통과됩니다. 참부모를 떠난 경우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방한수련회 말씀집』 74~75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디까지나 “참부모”가 중심이며 참부모에 의해서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가정은 혈통전환되어 참부모와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가정을 “양자 양녀”라고 말하 곽정환 씨의 언설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⑤— 창교자의 사명은 특정 종교의 창설이 아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통일교의 분열』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넷째, 문현진은 자신의 아버지인 창교자의 사명을 특정 종교나 교파 창설이 아니라 ‘참부모와 참가정의 실체적인 기반을 통해 인류를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류구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64 페이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실히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54 년에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정식으로 통일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말씀선집』 102-282,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25 페이지)

“1954 년 바로 오늘 유 협회장을 중심삼고 몇몇 사람이 북학동의 조그마한 집에서 간판을 걸고 출발하던 것입니다”(『말씀선집』 43-237,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25 페이지)

“내가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이름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거라구요.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적인 면에서 운동을 하려는데,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일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말씀선집』 163-161,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25 페이지)

“나는 교회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것입니다”(『말씀선집』 14-181,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29~30 페이지)

“내가 통일교회를 만들어서 '아, 하나님! 통일교회를 만들어서 나 자랑스럽습시다' 그런 생각 안 한다구요”(『말씀선집』 126-125,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30 페이지)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이 간판을 언제나 떼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말씀선집』 15-215,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③』 30 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창교자의 사명을 특정 종교나 교파 창설이 아니라...”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통일교를 창립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위의 말씀을 통일교회를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은 협회창립 27 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우리 단체가 창립된 것은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이 단체가 시작됐고 출발된 것임은 두말할 바 없는 것입니다”(『말씀선집』 113-92)

“여러분, 시의시대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후천개벽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각을 가지고 체휼할 수 있는 권내에서 모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평화신경』 250 페이지)

김종석 씨는 현진 님이 참아버님의 사명을 “특정 종교나 교파 창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통일교회 창립 27 주년의 기념일에 하신 말씀 속에서, 통일교회의 창립에 대해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며, 그것을 위해서 통일교회는 설립된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화신경』에서도 아버님은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통일교의 분열』의 부분을 인용합니다.

“문현진은 ……‘하나님→참부모→참가정→확대된 참가정(축복가정)’으로 이어지는 혈통복귀의 가치를 고수하며, 초종교적인 봉사와 이상가정 실현을 위한 평화이상세계 실현운동을 ‘One Family Under God’의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현진도 **참가정(창교자의 직계가정)**의 혈통이 전 인류에게 전수되는 (어떤) 의례로서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2015 년 8 월, 미국 씨애틀에서 축복결혼식을 주관했다고 한다. 추측컨대 그는 창교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혈통복귀를 위한 전통이나 의례를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의례로 디자인하여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66 페이지)

“문현진은 최근 GPF 외에 FPA (Family Peace Association, 가정평화협회)를 조직했고, 그 사명을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실현을 도모하며 그 가정들의 세계적인 연합활동을 통하여 세계평화 창건에 주력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동서, 314 페이지)

“FPA 의 특성을 ……①FPA 는 창교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삼고 있다”(동서, 314 페이지)

UCI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일부러 강조함으로써, “참부모와 참가정(직계가정)의 실체적 기반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FPA (가정평화협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해도 된다”라는 핑계(대의명분)를 얻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참가정의 정체성”이라는 잘못된 언설을 통해서, 참자녀님 가정이 참부모님의 승인을 얻지 않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여, 자녀님에 의한 “축복”을 통해서 혈통복귀인 듯한 것을 시도하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선집 323 권에는 참아버님이 문현진 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하에 인용합니다. 괄호()안의 문장은 보고자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할 게 있습니다, 아버님」) **준비할 것 나는 몰라.** (「지도자 대회하고요, 현진 님이 이번에 순회하는 데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뭘 할래?**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뭐야? 통일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청년이 통일교회 꼭대기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는 결길로 갈 수 있어.** (「그것은 너무 노파심입니다.」) 뭐, 노파심? 누가 노파심이야?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대해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을 대해서 하는 얘기야?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누가 노파심을 가지고 있어, 누가? (「현진님께서는 아버님에 대한 영광과 아버님께……」) 그 영광이 아버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통일교회의 영광이 돼야 돼. 전통을 어디에 세우는 거야?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세 번째가 아들이야.** 그거 알아? 어머니는 전통을 세우는 과정이라구.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 전통을 세우기 전에 아들 전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거 알아? (「예,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수습한다면 어머니가 하는 것은 왜 수습 안 해?” (『말씀선집』 323-83, 2000년 5월 31일)

“현진이는 내가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데 선생님보다 앞세워 가지고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통일교회 작당 패(당파를 만드는 무리, 분파)가 돼요, 작당 패,** 알아요? 자기들끼리 (대책을) 내세워서 거기에 선생님을 끌어들이고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무섭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전환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 설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선집』 323-91~92 쪽, 2000년 5월 31일)

2000년 5월 31일에 하신 참아버님의 말씀에서는 전통이란, **아버님과 어머니가 세운 전통에 따라서 아들이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000년 당시의 시점은 참어머님이 전통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에 계시고 아버님은 아직 그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자가 “현진님의 아버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현진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찬미했지만, 그에 대해서 아버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통일교회의 영광이 돼야 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아버님이 창설하신 통일교회란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단체인 것입니다.

또한 2000년 3월 31일에 세계대학연합 원리연구회의 세계회장 문현진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년 5월 31일의 말씀에서 참아버님은 문현진님을 아버님보다 전면에 내세워서 보고하게 되면 **“통일교회 작당 패(당파를 만드는 무리, 분파)가 돼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지금의 UCI의 모습을 예견하시는 것처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참아버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문현진은 최근 GPF 외에 FPA (Family Peace Association, 가정평화협회)를 조직”하여, “창교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참부모님의 방향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과거에 참아버님이 예견하고 계셨던 것처럼, 현진님을 중심으로 하는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일교회에서 다른 당파를 만들어 버린 무리(분파)가 되어,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의 분열』이 말하고 있는 “통일교회의 핵심 정체성” 및 현진 님의 수많은 정체성들이 모조리 말씀과 『원리강론』의 가르침과 엇갈려 있는 사실을 볼 때, 참아버님께서 생전에 “**현진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새삼스럽게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1년 천력 4월 23일(양력 5월 25일)에 “**참부모님 선포문**”을 공표할 수 밖에 없었던 참부모님의 외로운 심정을 헤아리면서, 결코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정체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부모님의 품에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에 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참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려는 김종석의 『통일교의 분열』의 “허위”를 파헤친다 (5)

—— 서적 속에 산전하는 “말씀 개찬” 문제 (1)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고 있는 『통일교의 분열』의 한국어판은 말씀을 끌어 모아 만듬으로써 진의를 왜곡시키는 “말씀 개찬”을 하고 있으며,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그 왜곡된 문장을 더더욱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악의적으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이하, 『통일교의 분열』(한국어판과 일본어 번역판)에 포함되는 “말씀 개찬”과 “오역”의 문제를 파헤 치고자 합니다.

(1) 말씀을 오역하고, 어머니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케 한다

——아버님이 17살 어머니를 이용해서 먹었다?

『통일교의 분열』은 참아버님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말하면, 눈을 이렇게 높이 떠요. 자기 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127 페이지. 참고: 이것은 『통일교의 분열』에 의한 번역문, 말씀선집 597-163, 2008년 9월 9일)

이 말씀을 근거로 김종석 씨는 “이 언급으로 한학자가 17 세에 창교자(주, 아버님)를 만나 혈통복귀 신화와도 같은 성혼식을 행한 사건을 천주사적 가치가 아니라 창교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7 페이지. 참고: 굵은 글자는 교리연구원이 굵게 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이 “질책”(127 페이지)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책의 후반 부분에서 “17 세부터 구세주의 아내로 살아온 삶 자체가 그녀(주, 어머님)에게는 트라우마였다는 관점은 한학자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잃어버린 퍼즐과 같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한학자의 트라우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 창교자와의 갈등으로 발전한 것은 통일교 분열의 감추어진 원인이었다” (280 페이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말씀 개찬”과 “오역”에 근거한 참어머님을 알아보려고하는 허위 주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김종석 씨는 『통일교의 분열』 127 페이지에서 전술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참어머님이 성혼식에 대해서 아버님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씀선집의 원전에서 확인해 보면, 이것은 말씀의 전후의 문장을 숨기고 의미를 오독시키면서, 독자를 오도(誤導)하려는 악의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의 인용 부분과 다붙여서, 이하에 『통일교의 분열』에서 그 전후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2008.9.9.

성공적인 몽골 대회가 한참 진행되던 날, 창교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통일교가 안팎이 하나 안 되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안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밖은 ‘통일교 조직’을 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창교자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창교자는 한학자를 나무라고 있었다.

「통일교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말하면, 눈을 이렇게 높이 떠요. 자기 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주, 말씀선집 597-163, 2008 년 9 월 9 일)

이 언급으로 한학자가 17 세에 창교자(주, 아버님)를 만나 혈통복귀 신화와도 같은 성혼식을 행한 사건을 천주사적 가치가 아니라 창교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7 페이지)

이 『통일교의 분열』의 문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말하는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의 부분은 마치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에 대해 “이용”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아버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을 읽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종석 씨는 참아버님은 그것에 대해서 참어머님을 “나무라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이하에 그 “거짓”을 폭로합니다.

(2) 말씀선집의 원전을 읽고 알 수 있는 진실

① 김효남 씨에 대한 경고의 말씀

김종석 씨의 잘못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일교의 분열』이 인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말씀을 포함하여 문맥을 고려하면서 정확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 자체를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키겠어요? 엄마가 지켜야지. 훈모님은 대리인이에요. 그런 뭐 세간살이를 생각할 수 없어요. 있더라도 그 마음은 아들들, 후계자들 앞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요.

훈모님은 그렇게 되면 섭섭하겠지! 아버지 사랑을 남편 사랑과 바꾸다니…! 사탄 세계의 사랑!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 떠나서는 남편 사랑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갖춘 모든 전부를 자손만대 후대에 선조들의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중략)

……통일교회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된다고요.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말하면, 눈을 이렇게 높이 떠요. 자기 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말씀선집』 597-162~163)

참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2008 년 9 월 당시, 김효남 씨가 “청평 섭리”를 통해서 세운 기반은 천성왕립궁전, 천정궁 박물관을 비롯한 제반 시설, 그리고 조상해원, 조상축복, 영인축복 등,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효남 씨는 참아버님의 바로 옆에서 모실 수 있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효남 씨에게 참아버님은 그 입장을 “누가 지키겠어요? 엄마가 지켜야지. 훈모님은 대리인이에요. ……넘겨줘야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옆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옆에서 “남편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아버님 (선생님) 자체는 “엄마(어머님)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모님은 대리인이에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훈모님은 그렇게 되면 섭섭하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갖춘 모든 전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효남 씨의 입장은 참아버님 앞에, 말하자면 “사랑의 토대”로서 아버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입장에서 손을 놓고, 아버님 곁을 떠나서, 자기 대신에 참어머님이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김효남 씨는 “섭섭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아버님은 아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님은 김효남 씨를 참사랑으로 타이르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라는 부분의) 통일교회의 “안”이란 참부모님을 나타내고, “밖”은 식구들, 특히 여기에서는 김효남 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이 “통일교회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통일교회 식구들, 특히 김효남 씨(밖)가 참부모님(안)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라는 두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점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와 “그래서는……”의 주어는 분명히 김효남 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김효남 씨가 참어머님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의 주어는 참아버님이 됩니다.

결국, 문장의 흐름(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김효남 씨가 어머님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효남 씨는 그런 일을 (어머님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서, 참아버님이 충고를 담아서 (김효남 씨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의 분열』의 (일본어) 번역문은 “통일교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 어머니 혼자가 웬일인지 (하나 안 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문제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어머니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씀 개찬입니다.

② 아버님은 “누군가의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다음으로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의 부분은 누군가가 보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자인 김종석 씨 자신도 “창교자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7 페이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도, 김종석 씨 자신도 이 부분이 “누군가가 보고한 내용”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라는 부분은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김효남 씨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아마도 김효남 씨)가 참아버님에게 보고한 내용을 아버님이 전체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보충을 하면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라는 보고를 받은 것을 참어머님에게) 말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참어머님이 “눈을 이렇게 높이 떠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눈을 높이 뜨신 행동은 깜짝했을 때, 놀랐을 때의 표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면하는” 행동이나 “눈을 부라리는” 것도 아니고, 눈을 “높이 뜨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장의 흐름과 전후를 감안해서 읽어 보면, 이 보고 내용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어머님은 기억조차 없는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서서 눈을 높이 뜨셨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김종석 씨도 이 부분이 누군가가 보고한 내용이며, 참아버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급으로 한학자가 17 세에 창교자(주, 아버님)를 만나 혈통복귀 신화와도 같은 성혼식을 행한 사건을 천주사적 가치가 아니라 창교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통일교의 분열』, 127 페이지)라고 말하면서, “창교자는 한학자를 나무라고 있었다”(127 페이지)라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를 오도(誤導)하려고 “허위 스토리”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성혼식은 어머니의 자랑

그러면 참어머님 자신은 성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니는 참아버님과 성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도쿠노에이지 일본회장은 어머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4 월 12 일 (천력 3 월 16 일)에 한국 천정궁 박물관에서 개최된 ‘참부모님 성혼 57 주년 기념식’에 참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기념식 및 그 전후에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참어머님은 “앞으로 성탄, 성혼, 성화의 세 기념일을 기둥으로 축하한다”고 명언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성탄, 성혼, 성화는 온 인류에게 역사상 얼마만큼 중요한 날인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략)… 그 성혼에, 성탄과 성화를 더한 세 가지 행사가 향후 모든 명절, 기념일의 중심으로서 경축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세계가정』 2017 년 6 월호, 17-18 페이지)

이와같이 참어머님은 “성혼”을 귀한 날로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성탄, 성혼, 성화의 세 기념일을 기쁨으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쁨(중의 하나)인 성혼은 참어머님에게는 자랑입니다.

따라서 김종석 씨의 『통일교의 분열』이 말하는 “한학자가 ……성혼식을 행한 사건을 천주사적 가치가 아니라 창교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127 페이지)이라든지, “17 세부터 구세주의 아내로 살아온 삶 자체가 그녀(주, 참어머님)에게는 트라우마였다”(280 페이지)라는 기술은 참어머님을 알아보기 위한 극히 악의적인 “허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참어머님께서 자신은 17 세에 성혼하셨을 때 굳게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만 17 세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섭리역사를 내 대에서 끝낸다. 내가 끝낸다.”라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천일국경전 『참부모경』 192~193 페이지)

“나는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사명을 완성 · 완결했다고 선언하려면 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누구한테 미루지 않겠다. 나 스스로가 책임을 다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뜻은 발전하고 성공한다. 사탄을 반드시 물리친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동서(同書), 193 페이지)

이와같이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성혼식”에 임하면서, 굳게 다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혼 57 주년 기념일 때에는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남을 극복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한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된 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마음과 “결심”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아버님은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은 점이 참 많다구요. 대단하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고 어머니로 택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얌전하지만 무서운 여자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자기 일대에 이 모든 복잡한 한의 고개를 전부 청산하겠다는 결심이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하다구요”(『말씀선집』 222-277,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⑩』 351~352 페이지)

“선생님은 이제 칠십이 넘었으니 쓰레기통 가까이 갔지만, 어머니는 지금 쓰레기통을 수습해 가지고 그걸 다 소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보다도 어머니를 더 중요시 여길 줄 아는 통일교회 교인이 되면 복을 받아요” (『말씀선집』 220- 238, 일본어판은 『참부모님 생애노정⑩』 352 페이지)

이와같이 참어머님은 “성혼”에 임하면서 참아버님 앞에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사명을 완성·완결했다고 선언하려면 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누구한테 미루지 않겠다. 나 스스로가 책임을 다한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계셨으며, 아버님도 이와같은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가 좋은 점이 참 많다구요. 대단하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고 어머니로 택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얌전하지만 무서운 여자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자기 일대에 이 모든 복잡한 한의 고개를 전부 청산하겠다는 결심이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하다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석 씨가 참어머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한다든지, “17 세부터 구세주의 아내로 살아온 삶 자체가 그녀(주, 어머니)에게는 트라우마였다”라고하는 기술은 완전히 “조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 개찬”이나 의도적인 “오역”이 산견하는 이 책을 보급시키는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붕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아버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고, 모시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 개찬”이나 “오역” 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저자나 번역자들이 말씀의 원전『말씀선집』을 찾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억지로 숨기고나 개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 UCI (소위 “곽 그룹”) 측의 “독생녀”비판에 대한 견해

UCI 측이 자주 떠들어대는 “독생자·독생녀” 비판에 대해서, 참어머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일국 5 년 천력 3 월 16 일 (2017 년 양력 4 월 12 일),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 57 주년 기념식”이 한국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식전에서 참어머님은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의 “성혼 기념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날은 모든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독생녀… 2 천 년 전 예수그리스도는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독생녀도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한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 앞에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었습시다” (『세계가정』 2017 년 5 월호, 6 페이지)

참어머님 스스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 식구를 향해서 최근에서 하신 말씀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성혼 기념일이란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양 잔치를 한 날”이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의 “성혼 기념일”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란 문선명 참아버님이며, 그리고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는 한학자 총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어머님은 참아버님도 참어머님도 둘 다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어린양 잔치”를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어머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독생자·독생녀”란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UCI 측이 자꾸 떠들어대는 “독생자·독생녀” 비판에 관한 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은 참어머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어머니를 알보기 위한 악의가 담긴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11.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논리의 악용에 대해서

——재림주에게는, 다음 대로 이어지는 연장섭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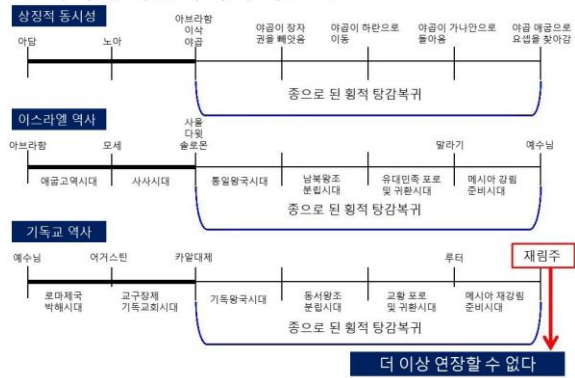
2014 년 6 월 18 일, 카미야마 다케루 씨(고인)는 꺾 그룹 측이 부산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원절은 무엇을 해야 했었는가 ……하나님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했다. 아버님이 소생, 장성, 완성,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혼식을 참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까? ……기원절은 1 월 13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계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종적인 역사의 실패를 상징현제로 탕감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 그것을 횡적으로 탕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횡적으로 (섭리가) 연장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아버님, 그 다음 자녀님, 그리고 3 대(손자님)까지. 1 대, 2 대, 3 대로 하나님의 가정,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원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미야마 씨는 참아버님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성화하셨다고 결론짓고, 마치 아브라함의 상징헌제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장된 바와 같이, 현대 섭리도 참아버님, 자녀님, 손자님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섭리적 동시성시대의 대조표



그러나 이것은 『원리강론』이 논의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종으로 된 형적인 탕감복귀”(407 페이지) 논리의 악용이며, 잘못된 언설입니다. 이러한 생츠키행교회 및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은 모두 『원리강론』이 논하고 있는 “원리”에서 벗어난 비원리적인 주장입니다.

“섭리적 동시성시대의 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에서 굶은 선으로 표시된 아브라함까지 부분이 본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징헌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섭리는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리강론』에는 “만일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뜻 맞게 세웠더라면 ……그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았을 것이었다 ……(그런데) ‘상징헌제’에 실수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252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구약시대)에서도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울왕을 중심한 그 ‘믿음의 기대’ 위에서 성전을 받들고 나아가는 이 국왕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실체기대’를 조성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었다”(『원리강론』 439~440 페이지)라고 있듯이, 그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것들을 종으로 된 형적 탕감기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일왕국시대 120 년, 남북왕조분립시대 400 년, 이스라엘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 년, 메시아 강림준비시대 400 년을 찾아 세워 가지고 마침내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422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 이후의 역사는 “종으로 된 형적 탕감복귀”의 역사이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득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 제 3 아담으로 재림하셔야 할 것을 예시하신 것이었다. ……여기(노아의 비둘기 섭리)에 기록되어 있는 7 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섭리적인 어떠한 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아니 된다(메시아가 강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280 페이지)라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 섭리를 즉각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신약시대)에서도

『원리강론』에는 “카알대제가 이 기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기독교이상(基督理想)을 실천해 나아가면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이와 같이 되었어야만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었다” (441 페이지)라고 말하고 있듯이, 재림주는 그 때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실체헌제’를 하기 위한 아벨의 위치를 떠났었기 때문에 ‘실체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441 페이지)기 때문에, 섭리는 아브라함 때와 같이 연장되어, 현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카알대제 이후의 역사는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의 역사이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림주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참아버님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그 섭리를 즉각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섭리처럼, 참아버님, 자녀님, 손자님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츠퍼트 교회와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섭리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리”에서 벗어난 비원리적인 언설입니다.

『원리강론』은 “재림주님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 하여도 초림 때와 같이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참부모님을 세우시어 창조목적은 이루시려는 섭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치어 재림주님에 이르기까지 세번째인 재림 때에는 의당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되어 있(다)”(393 페이지)라고 논의하고 있으며, 재림주의 섭리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연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숙지하고 계셨던 참아버님은 “거짓 부모의 피살을 이은 사탄세계의 망국지환경을, 영계와 육계에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수리하는 책임을 진 참부모라는 사람이 할 일은 수천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한 것과는 달라요. 일대에서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대에 해결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말씀선집』 344-264, 일본어판은 『패밀리』 2001 년 6 월호, 9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런 역사를 일대에 해결해야 돼요, 일대에. 선생님 몇 대가 아니예요. 일대에 해결해야 돼요. 아담이 일대에 승리하지 못한 것을 역사를 총탕감해서 일대에 정비해야 할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 생각해 보라구요”(『말씀선집』 344-268, 일본어판은 『패밀리』 2001 년 6 월호, 13 페이지)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평생을 “불면불휴(不眠不休)”하시고, “역사적으로 총탕감”하신 승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2012 년 8 월 13 일, “다 이루었다”(천일국경전 『천성경』 1646 페이지)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아버님 자신의 생애와 복귀역사 전체를 총괄하는 역사적인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이 “미완성의 메시아”인 것처럼 논의하면서,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원흉(元凶)은 참아버님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대·최악의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츠했어리 교회와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아버님이 “참부모”로서의 승리 기준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성화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성화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아니, 자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자녀님의 말을 우선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아버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는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 (『말씀선집』 283-56, 일본어판은 『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51 페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참아버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자녀님을 옹호하는 그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들이 의식하던 말든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부정하고 있는 자녀님 (UCI 의 경우 현진님, 생츠했어리 교회는 형진님)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자녀님의 지금 입장을 옹호하려는 비원리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과 “불순한 동기”에 의한 비원리적인 행동을 일소해야 합니다.